

조선대학교 소식

Vol. 252 2019. 11월호



〈커버스토리〉

김희정 문예창작학과 교수



조선대학교

학생성공을 여는 대학 지역혁신을 이끄는 대학



건학이념

조선대학교는 부강한 국가건설과 세계인류 공영을 위해 봉사하는 영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

- 개성교육 : 창조적 정신으로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인재를 기른다.
- 생산교육 : 교육의 장과 사회를 연결하는 생산교육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봉사하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 영재교육 : 폭넓은 장학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자질을 갖춘 영재를 육성한다.

교육목적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이념과 본교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심오한 학술연구와 교수 및 사회봉사를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개성을 중시하는 창조적 인재 양성
- 국제적 식견을 겸비한 전문인재 양성
-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회지도자 양성
-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인재 양성

조선대학교 소식

No.252 | 2019. 11.

CONTENTS

04 | 특집

조선대학교 개교 73주년 기념식
조선대학교, 제100회 전국체전서 '역대 최고 성적'

08 | 커버스토리

김희정 문예창작학과 교수, 예술영화 〈프랑스여자〉 연출

12 | 캠퍼스 갤러리

〈아름다운 밤입니다〉 조선대학교 야경

14 | 조선대 핫뉴스

34 | 화제의 조선대인

박지희 동문, 동화책 『내가 보여?』 발간
안진선(건축학과 5학년), 한국농촌건축대전 대상
수상 소식

44 | 입시 정보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약
특수대학원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대학원 2020학년도 전기(1차) 신입생 모집

50 | 글로벌 캠퍼스

〈유학생을 만나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인터뷰

52 | 연구·특성화 사업

LINC+사업단
HK+사업단
SW융합교육원
체육예술교육기부사업단
창업지원단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62 | 중앙도서관 소식

64 | 미술관 소식

66 | 기고

‘디지털 디톡스’ 시작해 볼까
- 김한나 체육대학 공연예술 무용과 3학년
(조선대학교 홍보대사)

68 | 열린 대학

시민르네상스평생교육원

72 | 병원소식

77 | 의료칼럼

목에 혹(임파선, 림프절, 임파절)이 만져진다면?
- 박준희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기고

78 | 치과병원 소식

79 | CU Again 7만2천 발전기금



chosun_univ



chosununi

조선대학교 개교 73주년 기념식

교직원·학생 등 구성원 1,000여 명 참석
“설립동지회 송고한 뜻 깊이 새겨 재도약”



조선대학교가 지난 9월 27일 개교 73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조선대학교는 지난 1946년 개성교육·영재교육·생산교육이라는 3대 건학이념으로 출발해, 우리나라 최초의 클라우드 펀딩(모금활동)으로 설립된 대학이며, 73년의 역사 속에서 25만여 명의 동문을 배출한 호남지역 대표 사학으로, 개교기념일은 9월 29일이다.

이날 행사는 휴일인 29일 제 73주년 개교기념일을 앞서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전 10시 30분에 설립기념탑 헌화식이, 오전 11시에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1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이번 기념식에는 △박관석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이민수 총동창회장 △홍성금 조선대학교 총장직무대리 △조순계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배학연 조선대학교병원장 △손미경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홍석신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장 △장병훈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교장 △황하택 조선대학 설립동지회기념사업회 이사장 △최준식 조선대학교 명예교수회장 △김정현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등 조선대 교직원 및 학생 1,00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황하택 이사장의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입회 권유문’ 낭독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최병기 대학원장은 73년간의 발전상을 담은 조선대학교 연혁을 이어서 낭독했다.

이후 이사장 공로상(이재규 등 8명)과 총장 공로상(조은미 등 3명), 30년 근속포상(문경래 등 27명), 20년 근속포상(김권영 등 12명), 총장 모범상(민경혜 등 7명)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어 백악학술상과 백악산학협력상이 시상됐다. 백악학술상은 우리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학자적 덕망이 높고, 연구와 저술 및 창작활동 등의 업적이 탁월해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교수 2명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에는 강양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와 최영주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백악산학협력상은 산학협력 분야의 우수교원에게 시상되는 표창이다. 노성희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교수, 김윤태 IT융합대학 전자공학부 교수가 수상했다.

발전기금 기탁자 감사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21명의 발전기금 기탁자들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기탁자 대

표로 KT&G 전남본부장을 대신해 전영삼 상상팀장이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박관석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대학이 개교한 지 73주년이 되는 2019년은 우리 대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가 되고 있다. 구성원들은 힘을 모아 우리 대학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새로이 출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수 조선대학교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황토로라도 담을 쌓고 창호지로라도 문을 발라 허청에서라도 가르치고자’했던 73년 전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원들의 헌신적 태도와 도전정신을 본받아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재도약하자”고 격려했다.

홍성금 조선대학교 총장직무대리는 기념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대학 17대 총장선거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해 호남 최고 사학으로서의 명성과 위치를 확고히 하고 다가오는 설립 100주년에는 전국 주요 사립대학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선대학교, 제100회 전국체전서 ‘역대 최고 성적’

금 5개, 은 6개, 동 9개 확보

조선대학교 선수단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선수단 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거두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조선대학교 선수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해 총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9개를 획득했다.

먼저 육상의 모일환 선수가 200m와 400m 종목에서 1위에 오르며 승전보를 올렸다. 모 선수는 이번 체전에서 ‘2년 연속 2관왕’, ‘전국체전 3연패’, ‘400m 종목 대회 신기록(46초70)’ 등의 각종 타이틀을 얻었다. 또 김명하 선수가 멀리뛰기에서 7m52를 기록, 자신의 최고기록을 갱신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세단뛰기에서 김주환 선수도 동메달을 수상했다. 육상 1600mR(이어달리기) 종목에서는 한승완, 김민후, 김효빈, 모일환 선수가 한팀으로 달려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전통적으로 강세종목으로 통하는 태권도 종목(겨루기)은 올해도 메달밭이었다. 이기범 선수가(63kg급) 1위에 오르며 금메달을 추가한 데 이어 한서희(62kg급) 선수와

김한서(73kg급)가 은메달을 확보했으며, 김유라(46kg급), 김가람(68kg급), 황지은(73kg급)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다.

역시 강세종목으로 통하는 레슬링에서 이경연(자유형, 74kg급) 선수가 금메달을, 서수일(97kg급) 선수와 김다현(60kg급) 선수가 3위에 올라 동메달을 받았다.

더불어 지난 8월 창단된 조선대학교 양궁부(이성준, 이진용, 김정훈)도 공식 창단 후 첫 출전대회인 전국체전에서 선전하며 눈길을 끌었다. 양궁 개인전(30m)에서 김정훈 선수가 2위를 차지했고,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모일환(왼쪽 두 번째), 김명하 선수(왼쪽 세 번째)



이기범 선수



이경영 선수



조선대학교 배구팀



조선대학교 검도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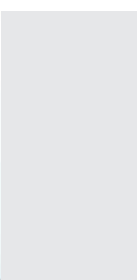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양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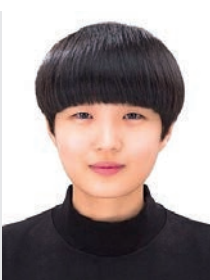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농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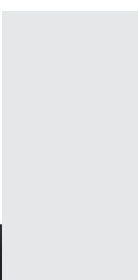
김기람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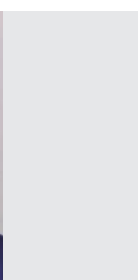
김유라 선수



한서희 선수



황지은 선수



단체종목의 선전도 빛났다. 요 근래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광주 배구는 올해 전국체전에서 조선대 배구팀이 크게 활약해 동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배구명가 광주’라는 명성을 되찾는 신호탄이 됐다. 조선대 선수로 구성된 검도팀이 은메달을, 농구팀도 동메달을 수확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외에 김다솜·채희수 선수가 배드민턴 개인복식에서 3위에 올라 동메달을 수상했다.

이계행 조선대학교 선수단장은 “조선대학교 선수들의 노력과 체육대학 교수 및 감독들의 세심한 리더십으로 이번 전국체전에서 조선대학교 선수단은 큰 결실을 거뒀으며, 광주광역시의 전국체전 순위 상승에도 기여했다”면서 “우리 대학 선수단이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드높여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연출을 맡은 네 번째 장편 예술영화 <프랑스여자>가 9월 ‘제8회 롯데 크리에이티브 공모전’에서 독립영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앞서 <프랑스여자> (A French Woman)는 지난 5월 전주국제영화제 초청 상영에 이어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개최됐던 ‘제2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도 초청 상영되기도 하는 등 개봉 전부터 연신 영화제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직 영화감독이 교수로 강단에 서는 일은 흔치 않다. 작품활동과 학사일정을 동시에 소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희정 교수는 해내고 있다. 2007년 장편 데뷔작인 <열세 살, 수아> 이후, 최근 10년 동안 <설행_눈길을 걷다>, <청포도 사탕: 17년 전의 약속>, <프랑스여자>까지 등 작품성을 인정받은 예술영화들을 쏟아 내면서 수년째 조선대학교 강단에 서고 있다.

조선대학교 대표 ‘슈퍼우먼’인 김희정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예술에 대한 끝없는 고민과 왕성한 창작활동, 작품세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문화예술계를 짊어지게 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자로서의 열정과 책임감에 대해 가감없이 들려 주었다.

“방학 땐 영화를 찍고,
학기 중에는 학생들을 가르치죠”

영화제작 현장과 강단을 종횡무진하는 김희정 문예창작학과 교수

약자·여성·상처·내면 등 ‘작품의 공통 키워드’ 사랑하는 사람 잃은 ‘남겨진 사람들’ 관심 극작가로서 문학에서 주된 영감 얻어

Q. 먼저 영화 <프랑스여자>의 영화제 초청 상영과 수상을 축하합니다. <프랑스여자>는 어떤 영화인가요?

내년 상반기 개봉 예정인 <프랑스여자>는 파리에 유학 와서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미라’라는 주인공이 프랑스인 남편과 막 이혼한 상태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한때 예술가를 꿈꾸며 프랑스 땅을 밟았던 미라는 꿈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채 프랑스에서 중년을 맞이하게 되죠. 영화는 중첩된 시간의 지층을 방문한, 어느 한 무리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경계인인 미라를 통해 중년 여성의 우울감과 감성을 그려내는 판타지입니다. 배우들의 출중한 내면 연기가 하나의 앙상블을 이루고 있으니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듯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Q. 지난 영화들 <열세 살, 수아>, <설행_눈길을 걷다>, <청포도 사탕: 17년 전의 약속>을 보면 약자, 여성, 내면의 상처, 일상 등 공통된 키워드가 있는 것 같네요.

주인공으로 여성들이 많은 점은 제가 여성이라 여성이 느끼

는 감정에 대해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평소 ‘약자에 관심’,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유별난 편입니다. 약자에 대한 관심은 영화 <설행_눈길을 걷다>에서 두드러지죠. 알코올중독자를 주인공(정우)으로 세웠으니까요.

더불어 어릴적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도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감성을 지속적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제 자신이 서른 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죽음’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또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내야 했던, 그 과정을 <열세살, 수아>에 담기도 했었죠.

Q.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나요?

주로 문학입니다. 영화감독이기 전에 극작가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문학을 공부하고 또 즐깁니다. 사실 조선대학교 교수로 임용되고 나서 존경하는 소설가인 이승우 선생님과 신형철 평론가를 직장동료(조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만나게 된 사실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문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두 분의 실력과 명성을 아실 거예요.



현직 영화감독인 김희정 교수가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 김희정 교수 제공

폴란드 우츠 국립 영화학교서 수학 “그때의 감정 <프랑스여자>에 표현”

Q. 서울예대 극작과를 졸업하고 전세계 영화인들이 선망한다는 폴란드 우츠 국립 영화학교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시절과 유학시절은 어땠는지요?

대학시절 공부는 못했지만 감수성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예술을 전반적으로 좋아했습니다. 문학, 음악, 연극, 미술 등……. 그래서 영화가 저에게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예술을 하나의 장르에서 만날 수 있다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언제나 깨어 있으면 운과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고 믿어요. 우츠 영화학교에서 전세계에서 온 전도유망한 영화인들과 배우고 작업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조선대학교에서 존경하는 문학인들의 동료가 된 것도 저한테는 큰 행운이 따른 것이죠.

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은 최근 영화 <프랑스여자>에 나타납니다. 극중 미라도 예술가의 꿈을 안고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

죠. 프랑스에서 20년을 살게 된 미라는 프랑스와 한국, 어느 한 쪽에서 완전히 동화되지 못한 ‘경계인’입니다. 제가 유학시절 겪었던 감정의 형태도 그것이고요.

Q. 호남 지역과의 인연이 있으신지요?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조선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전남 진도 출신이에요. 돌아가신 후 진도에 있는 선산에 계시는데, 매년 인사드리러 진도를 방문합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3년 전 강사로 시작해 2년 전 교수가 됐습니다.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제작하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가르치는 일을 좋아해 교수로서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전공은 영상문학입니다.





영화 <프랑스여자>를 감독한 김희정 교수와 배우들이 전주영화제에 초청돼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



Q. 교육에 대한 철학으로 여기는 가치가 있나요?

영화 제작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현장을 강의하는 편입니다. 학교가 광주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살아있는 현장을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이죠. 때문에 현직 영화 감독인 제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제작 현장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전할 수 있고, 학생들도 이 점에서 호응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같이 작업했거나 일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배우들을 강사로 초청해 특강을 하기도 했었어요. 영화 <청포도 사탕>의 박진희씨가 우리 대학에 온 적이 있어요. 영화제 방문도 수업의 일환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화 <프랑스여자>가 초청 상영됐던 전주국제영화제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방문했었어요.

지난 10월 18일 열렸던 '개관 84주년 광주극장 영화제'도 물론입니다. 영화 <프랑스여자>가 개막작으로 선정돼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 김지영씨가 광주극장을 방문했습니다. 광주극장은 광주지역 예술영화를 이끌어가는 상징적인 공간이죠. 학생들에게 행사장에 방문해 예술영화도 보고 배우 김지영씨와도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제안했어요.

Q. 향후 행보는?

일단 교수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읽고, 보고, 연구할 책과 영화들이 무수합니다. 차기작도 준비 중이에요. <미래는 빛나는 별이다>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올해 안에 마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가을밤의 낭만

조선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모집, 지난해보다 높은 경쟁률

5.4대 1 기록

조선대학교는 지난 9월 10일 2020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80명 모집에 19,982명이 지원해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5.5대 1,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5.5대 1, 학생부종합(일반)전형 7.3대 1, 실기전형 5.5대 1, 군사학과전형 7.4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 의예과, 치의예과의 경우 일반전형 경쟁률이 각각 32.5대 1과 43.8대 1로 나타나는 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역인재전형에서는 의예과 6.96대 1, 치의예과 8.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과별로 살펴보면, 학생부교과 일반전형에서 치의예과, 의예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식품영양학과, 경찰행정학과 등의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부종합 일반전형에서는 간호학과, 건축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찰행정학과, 건축공학과의 경쟁률이 높았다. 실기전형에서는 만화·애니메이션학과와 태권도학과가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신설학과 중에서는 소방재난관리학과가 7.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기대감을 높였다.



조선대학교 2020학년도 학사편입학

경쟁률 의대 4.27대 1/치대 10.33대 1 기록

조선대학교가 10월 14일 2020학년도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의과대학은 총 37명 모집에 158명이 지원해 4.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치과대학은 총 24명 모집에 248명이 지원해 10.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의과대학 일반전형은 22명 모집에 106명이 지원하여

4.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광주·전남지역 고교출신자 전형은 15명 모집에 52명이 지원해 3.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치과대학 일반전형은 12명 모집에 159명이 지원해 13.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광주·전남지역 고교·대학출신자 전형은 12명 모집에 89명이 지원하여 7.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생생한 취업 정보 제공하고 취업 성공담도 공유

조선대 2019 건설업계 채용박람회 성황
지역 대학생·취업준비생 1,000여 명 방문
건설분야 인재양성 위한 간담회도 개최



조선대학교가 지난 5일 공과대학 입석홀에서 개최한 ‘2019 건설업계 채용박람회’에 지역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10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조선대학교는 지역 학생들에게 건설업계의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19 건설업계 채용박람회’를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진행했다. 이번 박람회는 조선대학교가 주최하고 조선대 취업학생처와 조선대 LINC+사업단, 대학일자리센터가 주관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후원했다.

이번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한신공영 △계룡건설산업 △금호산업 △제일건설 △삼호 △우미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남양건설 △코오롱글로벌이다.

이날 박람회장에서는 테이프커팅식과 함께 공과대학 2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업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간담회도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 김병규 부구청장, 광주시청 일자리 정책관실 박명순 주무관 등이 참석하였

고, 건설업계에서는 배창영 LH 공사 부장 등 기업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홍성금 총장직무대리, 이동기 기획조정실장, 이승권 취업학생처장, 김춘성 산학협력단장, 조흥현 기계공학과장 외 3개 학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대학에서 배출하는 건설분야 졸업생들에 대한 건설업계 현장의 평가와 현장 실무형 직무능력 개발 및 개선사항 등이 논의됐다.

홍성금 조선대학교 총장직무대리는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유용한 취업정보를 알려주기 위하여 조선대학교 건설업계 채용박람회에 직접 발걸음을 해 주신 모든 기업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우리 대학에서도 기업이 원하는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기업별로 운영됐던 채용 상담부스에서는 기업 소개 및 동영상, 채용상담 등이 이뤄졌다. 특히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조선대 동문들이 이날 방문하여 부스에서 취업성공 경험담을 직접 소개하고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현장 1:1 멘토링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 김모(28·여)씨는 “유수의 건설 대기업 부스가 한데 모여 있어 취업정보를 한꺼번에 정리하기 좋았고, 동문들의 생생한 취업성공 경험담을 들으면서 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좀 더 생긴 것 같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조선대 취업학생처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계 채용박람회에는 전국의 우수한 건설사들의 실무진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의 취업준비생들에게 유용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핫뉴스

조선대학교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배출



정치외교학과 졸업생
윤우진씨

조선대학교는 정치외교학과 졸업생인 윤우진(29)씨가 올해 열린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CPA)에서 최종 합격했다고 전했다.

윤씨는 2012년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경영학을 복수전공하며 회계사를 처음 꿈꾸게 됐다고 한다.

윤씨는 군인 시절부터 회계사 시험을 틈틈히 준비해 왔으며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공부에 돌입했다고 한다.

윤씨는 중앙도서관에서 2년 간의 독학 끝에 지난 6월 열린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CPA)에 최종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다.

윤씨는 “조선대 황금추관에 입실해 도서관에서 꾸준히 공부해왔다. 좋은 성과가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선대학교 ‘빛고을 보은제’ 팡파르



지난 9월 18일 조선대학교 대운동장에서 ‘2019년 조선대학교 빛고을 보은제’가 성료됐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지난 2013년부터 총학생회 대동제와 단과대학 축제를 통합해 ‘빛고을 보은제’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대 설립주체인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대학만의 축제가 아닌 지역의 축제로 만든다는 취지다.

올해 축제 첫날인 9월 18일 오후 6시에 빛고을 보은제를 선포하는 커팅식과 개막식, 다양한 축하공연이 열렸다.

홍성금 조선대학교 총장직무대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축제가 구성원과 학생, 그리고 지역민들 모두가 즐겁게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하공연은 △외국어대학 치어리딩 공연 △조선대 갓 텔런트 경연(1일차) △체육대학 댄스스포츠 공연 △연예인 축하공연(임재현, 불빨간 사춘기) △EDM클럽파티 등이 진행됐다.

이틀째인 19일에는 △체육대학 태권도시범단 공연 △조선대 갓 텔런트 2일차 경연(2일차) △MC 레크레이션 △체육대학 공연예술무용학과 공연 △연예인 축하공연(박혜원, 국카스텐) △EDM클럽파티 등이,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사범대 씨비컨 댄싱공연 △쓰리톤 축하공연

△조선대 갓 텔런트 수상 및 공연 △광주여대 댄싱 축하공연 △불꽃놀이 △연예인 축하공연(수퍼비, 그레이)) △폐막식 및 EDM클럽파티 등이 펼쳐졌다.

김정현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빛고을 보은제는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사랑받고 있다”면서 “올해 축제에서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등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지역민을 위한 빚고을 보은제 투어’ 개최

축제 이름의 뜻 살려 올해 처음 마련
광주 동구 어르신·아동들 참가



조선대학교 빚고을 보은제가 지난 9월 18일부터 3일간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조선대학교 총학생회(회장 김정현)가 축제명이 의미하는 ‘지역민에 대한 보은’의 뜻을 살리고자 ‘지역민을 위한 빚고을 보은제 투어’를 마련해 지역사회의 눈길을 끌고 있다.

빚고을 보은제 투어는 축제가 개막하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광주시 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축제장 투어를 제공하는 행사다.

투어는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노인복지센터 이용 주민과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이 참여했다. 이날 투어 참여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조선대학교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미술대학 졸업작품전과 박물관 체험, 힐링존 및 포토존 체험, 개막식 공연 등을 관람했다.

이번 투어에 참석한 김선순 할머니(74)는 “오늘 조선대를 방문하지 않았으면 평소처럼 집에 하릴없이 있었을 텐데, 나들이처럼 투어에 참가해서 모처럼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조선대학교, “지역청년 독일취업 지원 발판 마련”

조선대학교-KOTRA유럽본부 지역청년 독일 취업지원 위한 MOU
독일 노동력 부족·광주지역 취업난 연계
긴밀한 협력체계·해외취업 프로그램 구축



조선대학교가 최근 본교 학생 및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독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조선대학교와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프랑크푸르트 유럽지역본부(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는 지난 10월 14일 개최된 ‘2019 한독 취업박람회(2019 Frankfurt Job Fair)’에서 조선대학교 학생을 비롯해 광주지역 청년 구직자의 독일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요 근래 독일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독일은 EU국가 이외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도 취업시장을 개방해 노동비자 요건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 더불어 독일에는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300여 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독일기업의 구인수요와 더불어 한국기업의 구인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KOTRA 유럽본부와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과 손잡고 지난 10월 14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이어주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에서 개최된 취업박람회에 참석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이번 취업박람회에 는 현대, 삼성, LG, CJ, 한화, 아시아나, 하나투어 등 독일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기업과 Inbody, EUKO, HASS, AIF 등 독일에 설립된 한국계 회사, 코트라, 한전의 독일지사 등 공공기관, Hilton 등 독일 호텔 2곳 등 총 28개의 기업과 150여 명의 구직자가 참가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조선대학교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독일어 집중 교육과 독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역 청년들의 독

일 취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태 KOTRA유럽본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조선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더불어 광주지역 청년들의 취업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장을 만들어 나가자”면서 “아울러 향후 세계 각지에 진출한 KOTRA무역관이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각 지방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선대학교를 대표해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옥선 조선대학교 교수(독일어문화학과)는 “양 기관 업무협약 체결의 계기를 마련해주신 김수미 KOTRA프랑크푸르트 광주사무소 소장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가동될 독일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독일 현지 KOTRA프랑크푸르트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조선대 및 광주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기술이전 수입료 실적 호남 사립대 중 1위

대학 보유 원천기술 실용성 평가 지표



조선대학교가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기술이전 수입료 실적이 호남지역 사립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에서 받은 ‘2016~2018년 대학 기술 이전 현황’ 자료를 분석해 도출됐다.

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은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다. 대학의 연구결과 중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은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돼 제품으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기술이전 수입료 실적을 통해 해당 대학이 보유한 원천기술의 실용성을 평가할 수 있다.

조선대학교 2016년부터 3년간 총 138건의 기술이전을 성사시켰으며, 총 18억 72만 3000원의 기술이전 수입을 창출했다.

조선대학교의 기술이전 실적은 호남지역 사립대학 중에서 1위이며, 호남지역 전체에서는 전남대, 전북대,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이어 4위다. 전국 대학 중에서는 27위에 올랐다.

홍성금 조선대학교 총장직무대리는 “우리 조선대학교는 호남 최초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치매 연구,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을 선도하는 등 남다른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국가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연구개발 사업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연구비 실적 호남 사립대 중 1위

지난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대학 30위 안에 안착



조선대학교가 지난해(2018년) 연구비를 호남 사립대학 가운데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말 공시된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조선대학교는 2018년 연구비 수혜실적은 529억 9516만 3000원으로 전국 205개 대학 중 29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7년(33위)에 이어 연속 호남 지역 사립대 1위에 오른 결과다. 호남지역 대학 전체 중에는 전남대, 전북대, 지스트대학(광주과학기술원·GIST)에 이어 조선대가 4위에 자리했다.

연구비 수혜실적은 최근 들어 대학 평가와 입시의 중요한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 우수한 연구 성과는 단순한 연구 수행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적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학의 존재 가치라 할 수 있는 연구

와 교육 모두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세계대학순위를 평가 발표하는 기관 및 매체 대부분이 대학의 연구 실적을 핵심적인 평가지표로 삼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홍성금 조선대학교 총장직무대리는 “연구비 수혜실적은 대학이 기본 기능과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며 대학의 미래발전상까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면서 “조선대학교는 호남권 유일의 SW중심대학 지원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등 규모가 상당한 국책사업을 수주해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사업 수주와 발전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2019학년도 하반기 국비사업 선정

안과 광학의료기기 글로벌화 사업

고재웅 교수팀 선정·180억원 확보



고재웅 교수

조선대학교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안과 광학의료기기 글로벌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 180억 원의 지원비를 확보했다.

안과광학의료기기산업은 안과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와 광학기술을 접목하여 융합한 의료기기산업의 한 분야로, 안과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한다.

이번 사업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고재웅 교수(안과)가 총괄책임자로, 2025년까지 6년간 국비 80억, 광주

시 80억, 민자 20억을 포함하여 총 1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에는 조선대학교 고재웅 교수팀을 비롯,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전남대학교병원, 광주보건대학교, 광주테크노파크가 참여해 국내 안과광학의료기기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사업화부터 마케팅까지 산학연병원 협력관계 구축한다. 연구팀은 단순 제조가 기반이었던 기존 안과광학의료기기산업을 고도화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등에 나서게 된다.

특히, 조선대학교에서는 시험분석 및 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초연구실지원사업 22억 확보

조창근 교수팀: 미래수요변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건축기술 개발

권구락 교수팀: 치매케어 3D 의료영상연구실



조창근 교수



권구락 교수

조선대학교는 최근 조창근(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팀과 권구락(IT융합대학 정보통신공학부) 교수팀이 ‘기초연구실 지원사업’에 선정됐

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위탁 운영, 관리하는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은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소규모 집단연구 과제 지원사업이다.

조창근 교수 연구팀은 이번 지원사업에 ‘미래수요변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건축기술 개발’이라는 과제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 및 주거여건의 선진화에 따라 미래 주택 및 건축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건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반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조창근 교수팀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3년간) 총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권구락 교수팀 또한 ‘치매케어 3D 의료영상연구실’이라는 과제로 이번 기초연구실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치매케어 3D 의료영상연구실’ 사업은 3D 의료 영상과 임상정보의 연계를 이용하여 치매 케어 및 임상 의료진단 지원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이다. 이에 따라 권구락 교수팀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3년간) 총 9억 8500만 원의 국비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조선대학교 문화초대석 '서예의 미학, 문자의 예술' 열린 강좌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양강좌로 매년 찾아오는 조선대학교 문화초대석이 2019학년도 2학기 '서예의 미학, 문자의 예술'이라는 주제로 막을 올렸다.

이번 강좌는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9월 18일 오후 4시 조민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의 '서예란 무엇인가?' 강연을 시작으로 △10월 2일 오후 4시 장지훈 경기대 서예학과 교수의 '서예의 전통과 현대' △10월 16일 오후 4시 전종주 호남대학교 명예교수의 '현대 서예가의 작품 세계' △10월 30일 오후 4시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의 '세계를 향한 도전! 미래를 위한 투자! 사회에 대한

공헌!' △11월 13일 오후 4시 오민준 신고전주의 작가의 '한글 캘리그래피의 세계' △11월 27일 오후 4시 박윤정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시각디자인과 겸임교수의 '한글과 컴퓨터 서체 탄생과 미학' △12월 4일 오후 4시 한소윤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서예문화학과 강사의 '한글 서예의 미학' 순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조선대학교 문화초대석은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이 창의적 문화리더 양성을 위해 개설했으며, 지역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문의는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062-230-6177)으로 연락하면 된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상훈 삼성전자 부사장 초청 강연



조선대학교는 지난 9월 25일 ‘이상훈 삼성전자 부사장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4시 입석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강좌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 조선대학교 청년TLO추진단이 주관해 열렸으며,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부사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paradigm 혁신’을 주제로 이번 강연을 진행했다.

이 부사장은 치열한 미중무역전쟁 장기화, 기업들 간 신기술 시장쟁탈전 등 불안정한 세계정세와 경제상황을 언급하며 이야기의 포문을 열었다.

이 부사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차세대 주자인 대학생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상식을 과감히 버리고 Big data 존중하기’,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스토리와 미디어를 생산하기’, ‘모든 분야를 융합해 거대 생태계 구축하기’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 부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로 ‘데이터 기술(Data Technology)’,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smart-X(Smart Product, Smart Factory, Smart Enterprise)’를 제시하며, 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으로 이 부사장은 “상상력과 혁신(현실화)을 위한 노력을 더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조언한 뒤 강의를 마쳤다.

이번 강좌에 참석한 중국어문화학과 3학년 김용호 학생은 “제조업 분야가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과정을 겪고 있는지 이상훈 부사장의 강연을 통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상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1990년 5월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영상 개발팀, 설계팀 등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008년 자랑스러운 삼성인 기술상을 수상하며 삼성전자 핵심개발자로 인정받았다. 현재는 삼성전자 부사장직을 수행하며 생활가전사업부 Global운영센터장, 생활가전사업부 메카솔루션팀장, 글로벌기술센터 금형기술팀 팀장을 겸직하고 있다.

알하르티 주한오만대사 조선대학교 특강

조선대학교는 지난 9월 26일 'Mohamed Salim Alharthy(알하르티) 주한오만대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3시 대학 본부 2104 강의실에서 열린 이번 강좌는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아랍어과(학과장 정규영)가 주관해 열렸으며,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알하르티 대사는 자신의 모국인 '오만(sultanate of Oman)'을 주제로 영어 강연을 진행했다.

알하르티 대사는 아라비아반도 남동부에 위치한 이슬람교 국가인 오만의 역사, 종교, 문화, 유적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연에 참여한 정지희(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4학년)학생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오만'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주한오만대사님께 직접 들을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알하르티 대사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매년 주한오만대사관에서 한국 학생 5명을 선발해 8주 동안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의 술탄 까부스 대학교에서 어학연수와 문화체



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조선대학교 학생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매년 4월 오만에서 열리는 교육엑스포에 조선대학교도 참가해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알하르티 대사는 "오늘 조선대학교를 방문해 그 규모와, 해방 후 민족교육의 열망으로 최초의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설립된 조선대학교의 깊은 역사, 대학병원과 치과병원의 높은 의료 수준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감명을 받았다. 앞으로도 조선대학교와 유대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홍성군 총장직무대리는 이날 시상식에서 “교원들의 노고 덕분에 최근 발표된 우리 대학 교육수요자만족도 평가 점수가 상승했다. 감사드린다”면서 “다변화하는 고등 교육환경에 맞춰 교육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조선대학교 중국전매대학과 학술연구·산학협력·문화교류 MOU



조선대학교는 최근 중국전매대학과 학술연구·산학협력·문화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국전매대학은 중국 유일의 TV방송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4년제 대학이다. 1954년에 설립되었으며 중국 방송·영화TV부 소속으로, '전매'는 전자매체를 뜻한다. 이 대학 졸업생은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중국국제 라디오방송국, 중앙인민라디오방송국의 저명한 아나운서 및 사회자로 활동한다.

지난 9월 6일 중국전매대학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중국전매대학 황신위엔 애니메이션디지털예술대학장, 랑리엔 국제협력처장, 아이성잉 애니메이션학과장과 조선대학교 권상로 대외협력처장, 김일태 만화애니메이션학과장, 유영태 기계시스템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조선대학교와 중국전매대학은 학술연구 및 산학협력 교류를 증진하고 한·중 문화교류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협약의 세부사항으로는 △교수, 연구원 및 직원의 교류 △어학연수, 대학생의 교류(교환학생, 복수학위 등) △대학원생 등 고급인재 양성과정(석사, 박사, 포스트닥터 등) △학술정보, 학술자료 및 서적과 간행물 교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개최 △상호간에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양 대학교가 합의한 산학협력과 기타 한·중 문화교류 사업 등이 있다.

김일태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장은 "오는 10월 27일 중국의 디지털미디어 관련 중요 100개 대학이 모이는 '대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중국전매대학 주최)에 조선대학교 교수진도 참여해 협약과 관련된 세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상로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장은 "중국 언론미디어 인재를 양성하는 권위 있는 대학인 중국전매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한중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재료공학과 '졸업생 초청 진로 멘토링' 행사 개최



조선대학교 재료공학과가 학생의 성공 취업을 지원하고자 졸업생 취업 기업과 협력해 개최한 '졸업생 초청 진로 멘토링' 행사를 성료했다.

조선대학교 재료공학과는 해마다 수차례 철강, 비철금속, 에너지, 반도체, 전자재료 등 다양한 분야의 졸업생을 초청해 후배들과 취업 경험담을 나누고 산업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지난 10월 8일에 열린 이번 행사는 조선대학교 LINC+ 사업단(단장 김춘성)의 지원을 받아 개최했으며, 국내 1위의 특수강 기업인 (주)세아베스틸, POSCO-SMSP 합작 니켈 생산 기업인 (주)에스엔에스, 국내 유일의 자동차부품 전문연구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 '광주의 구글'이

라 불리는 에너지저장장치 전문 스타트업 (주)비에이에너지가 참여했다. 특히 (주)세아베스틸은 2015년에 조선대학교 재료공학과와 'SAND(SeAH AND Department) 멘토링' 협약을 체결한 이래 꾸준히 졸업생 사원을 파견해 취업 지도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선점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김희수 재료공학과 학과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졸업생들은 현재 직장에서 느끼는 보람과 힘든 점, 재학생 시절 아쉬웠던 점 등을 나누는 동시에 재학생들은 평소 취업과 회사생활에 관해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조선대-제주대-전주대 교육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조선대학교는 지난 10월 1일부터 이틀간 조선대학교 본관에서 ‘조선대-제주대-전주대 교육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선대학교 교육혁신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호남·제주권 대학 선도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를 통해 마련됐던 조선대학교-제주대학교-전주대학교 간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3개 대학 교수·학습·교육과정 담당 교원(전임교원, 연구교수, 연구원), 실무팀장, 실무

직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미나에서 대학 간 담당업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3개 대학 간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방향과 업무별 분임 토의, 교류 프로그램 내용 등을 논의했다.

박호신 교육혁신팀장은 “교육혁신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번 3개 대학 세미나는 교수 간, 실무자 간 정보 공유 및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대 대학일자리센터

‘내 일(My Job)을 터치(Touch)하자!’ 홍보의 날 운영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이승권)는 지난 10월 15일, 10월 29일, 11월 5일, 11월 12일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에서 ‘내 일(My Job)을 터치(Touch)하자! 홍보의 날 행사’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대학일자리센터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 등을 알려 앞으로 더 많은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

사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와 홍보대사가 참여했으며,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퀴즈풀이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책 등에 대해 적극 안내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선대학교 학생 중 한 명은 “이번 ‘홍보의 날’을 통해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어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대학일자리센터를 자주 이용해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해외취업 희망 학생 대상 ‘글로벌 취업아카데미’ 단계별 특강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 총 3회에 걸쳐 ‘글로벌 취업아카데미’(Step1~Step3)를 운영했다.

글로벌취업 아카데미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조선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단계별 취업특강으로, 첫 단계(Step1)에서는 영문·일문 이력서 작성, 두 번째 단

계(Step2)에서는 영문·일문 이력서 완성, 세 번째 단계(Step3)에서는 해외취업 실질면접 준비로 구성됐다.

또 해외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영문·일문 resume(이력서), Cover Letter(자기소개서), 개인 PT면접과 심층 1:1 영어 모의면접도 진행됐다.

글로벌 취업아카데미에 참여한 학생들은 “해외취업의 다양한 직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모의면접을 해 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특히 영문 이력서 작성과 면접을 통해 영문법과 정확한 발음을 교정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윤오남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장은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산업공학과 성과 '눈길'

각종 학술대회서 잇따라 수상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소속 교수와 학생들이 최근 열린 각종 학술대회에서 연이어 수상을 거머쥐는 등 남다른 성과로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조선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대용)에 따르면 산업공학과 신종호 교수팀은 지난 6월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한국가스공사(KOGAS) 빅데이터·인공지능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에서 신종호 교수팀은 '심층신경망(DNN Deep Neural Network)과 강화학습 기반의 지능형 생산기지 운영 알고리즘' 기술을 개발, 발표해 대상에 선정됐으며 부상으로 상금 1500 만원을 받았다.

앞서 9월 6일에는 산업공학과 김성준 교수와 신종호 교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채교, 김민재씨가 팀을 이뤄 '2019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개발 컨퍼런스'에 참가해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성준 교수팀은 '보일러 효율개선을 위한 급수/증기계통 전전성 감시 방법론 개발'이라는 논문 발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부생들의 수상소식도 잇따랐다.

지난 11월 1일 김효중, 김민찬, 김정욱, 임동혁 학생이 김성준 교수의 지도 아래 한국품질경영학회 주최 '2019년 추계 학술대회 대학생 경진대회'에서 우수발표논문 대상에 선정됐다. 김효중 학생 등 4명은 이 대회에서 '작물 재배기(CU_FARM) 및 생육조건 최적화 기술 개발'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1위를 차지했다.

10월 31일에는 산업공학과 김형태, 이운재, 최운창 학생이 산업공학과 백정우 교수의 지도 아래 한국신뢰성학회

회가 주최한 '2019 추계 학술대회 대학생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우수발표논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형태 학생 등 3명은 이날 우유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계량 예측모형을 이용한 시스템 균형 달성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 호응을 얻었다.

조선대학교 산업공학과 관계자는 "산업공학과 구성원들의 그간 연구성과가 수상으로 빛을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업 들으며 쓴 글, 진짜 동화책이 됐어요!

웅진 그림책 공모전 수상작
동화책 <내가 보여?> 출간



출처: 웅진주니어 제공

시각디자인·문예창작학과 졸업 그림작가 박지희 동문(13학번)



그림작가 박지희 동문의 동화책 <내가 보여?>가 최근 출간됐다. 박 작가의 책은 2017년 제1회 웅진 그림책 공모전에서 입선을 한 수상작이다. 박지희 작가는 조선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학과와 문예창작학과를 복수전공했다. 박 작가의 동화책 <내가 보여?>는 학생 때 제작한 책이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포털사이트에서 평점 9.67에 달하는 점수를 받을 만큼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내가 보여?〉는 주변 사람들의 호의와 관심의 결과물'이라고 말하는 박지희 작가. 그녀에게 어떻게 동화책을 쓰게 됐고, 무엇을 담고자 했는지 자세히 물어봤다.

Q.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각디자인학과·문예창작학과를 전공한 박지희입니다. 현재 그림 작가로 활동 중이며 2017년에 웅진 그림책 공모전에 수상해 동화책 <내가 보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Q. 어린시절, 미술과 글쓰기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보였는지요?

그림은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시절부터 그렸어요. 사실 그렇게 잘 그린 것도 아니었을 텐데 주위 어른들이 '잘한다' 하니 신나서 더 그렸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좋아서 그린 게 가장 컸지만요.

글쓰기는 정말 대학교 와서 처음 시작했어요. 3학년 때 문예창작학과 복수전공을 신청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책도 만화책 말고는 스스로 읽지 않은 상태였죠. 문예창작학과를 복수 전공하게 된 계기도 특별히 없었어요. 같은 과 선배가 신문방송학과 복수전공 중이었는데, 그 선배가 자신이 복수전공하고 있던 신문방송학과는 물론이고 문예창작학과도 추천했어요. 교수진들이 좋다고 하시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대책 없는 생각이었는데, 막연하게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훌륭한 교수진들 밑에서 열심히 하면 바닥의 돌맹이같이 굴러다니는 내 글도 조금은 괜찮아지겠지' 하고요.

그렇게 문예창작학과 수업에 들어갔는데 첫 수업 때 교수님께서 “흥미로 신청한 거라면 취소하고 나가라”며 타과 학생들을 향해 말했어요.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살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배워야지’하고 결심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만일 디자인에 대해 “그냥 잘 편집해서 예쁘게 배치하면 되는 거 아냐?”라고 쉽게 생각하며 수업을 듣는다면 저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았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글과 그림을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Q. 동화책을 출간한 것은 오랜 계획이었나요 아니면 우연한 계기로 출간하게 됐을까요? 동화책 <내가 보여?>를 출간하게 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합니다.

미술대학을 졸업하려면 졸업 작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예창작학과를 복수로 전공했으니, 여기서 배운 글을 졸업 작품에도 반영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림과 글이 함께할 수 있는 작품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 그림책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글을 쓰면 무언가 우울한 부분이 항상 표현돼 있었어요. 굳이 고칠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동화 그림책을 만들거니까 ‘우울한 소재로 우울하지 않게 써보자!’며 제작한 것이 바로 <내가 보여?>였습니다.

유은실 교수님의 아동문학수업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제 책의 기반은 다 그 수업으로부터 비롯되었어요. 교수님은 억지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정말 신기한 분이세요. 졸업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수업 듣던 그때가 떠올라요.

그렇게 스토리를 짜고, 미대 동방에서 지박령처럼 앉아 작업하는데, 같은 과 동생이 공모전에 내라면서 링크를 보내줬어요. 그게 바로 웅진 그림책 공모전이었죠.

사실 수상이 결정되고 나서 시상식도 했는데 교수님께선 물렸어요.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렸거든요. 교수님께 엄청 혼났습니다. 시각디자인학과 특성상 공모전에 자주 출품해 떨어지고 당선되고,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다보니 교수님께 말씀드려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서운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잘못을 깨달았어요. 제자가 당신의 수업에서 영감을 받아 동화책을 쓰고 공모전에 당선까지 했다는 사실을 일찍 아셨으면 기뻐하시고 보람을 느끼셨을 텐데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동화는 많은 호의들 속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수업을 이끌어주신 유은실 교수님과 공모전 출품을 제안했던 친구를 포함해 주변사람들의 도움과 관심이 없었다면, 동화 역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내가 보여?> 이야기 속 주인공 ‘영우’는 ‘투명인간’으로 표현됩니다. ‘영우’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요?

앞서 말했듯이 영우의 이야기는 ‘우울한 이야기를 우울하지 않게 쓰자’에서 시작했어요.

읽고 공감할 만한 얘기를 쓰고 싶었고 자연스럽게 학교생활이 떠올랐어요. 언제나 반에 한 명씩은 존재하던 소외된 이들.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여주자. 반에 있지만 있지 않는 것 같은, 딱히 누군가 말을 걸지 않는 투명인간 같은 아이들. 괴롭히는 사람도, 함께 노는 사람도 없는 그런 아이요. 존재를 부정당하는 아이가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있음을 알아주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제가 우려했던 것은 혹여나 ‘주인공인 영우의 소심함이 잘못된 것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영우가 소심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영우를 외면했다. 즉, 바뀌어야 하는 건 애들이 아니라 소심한 영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우는 친구들과 어울리길 원했고, 행동의 변화를 보였지만 친구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관계가 성립되지 못해요. 친구들의 변화 역시 중요함을 말하고 싶었어요. 외면하지 않고 함께 마주보는 다정함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동화 안에선 영우 시점으로 전개되다보니 그 점이 잘 안 보이더라구요.

Q. 최근에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은지요? 출판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큰 포부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면 다 하자’는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혹은 다른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든 후회가 따르는 건 당연하다’ 여기고 ‘후회해도 해보고 후회하자’며 일을 시작하는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예창작학과 복수전공이 그랬고 제 일상에 있는 사소한 선택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키운 일이 버거워서 잠도 못자고 힘들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일을 끝내면 ‘힘들어도 좋았다’고 혼자 돌이켜보는 편이에요. 이처럼 ‘힘들지만 그래도 좋을 일’들을 반복하며 꾸준히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절 오래 가르쳐주신 유은실 교수님, 나희덕 교수님, 신형철 교수님, 이승우 교수님, 정용준 교수님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뒷자리에서 수업 듣다가 수업 끝나면 후다닥 사라지는 탓에 절 기억 못하실 수도 있지만요. 전 언제나 이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농촌에 사는 행복 느끼게 해주고 싶어”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안진선 학생, 한국농촌건축대전 대상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5학년 안진선(여·25)학생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건축학회에서 공동 주최한 '2019 제14회 한국농촌건축대전'에서 '가야에 가야하는 곳'으로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차지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3살 때부터 화순군에 거주하며 눈에 담은 정답고 아름다운 농촌이 사람이 없어 낙후된 공간으로 여겨지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무엇보다 농촌을 살리는 건축을 하고 싶다”는 그의 열정이 통했는지, 마침내 그는 이번 한국농촌건축대전에 자신이 연구한 농촌의 주거를 선보여 큰 상을 받았다. 우리나라 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예비 '농촌주거 전문 건축가' 안진선 학생을 만났다.



Q. ‘농촌 주거에 관심이 많은 특별한 건축학도’라며 요즘 언론에서 진선 학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 농촌건축대전’이라는 곳은 어떤 대회인가? 참여하게 된 계기는?

‘2019 제14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촌건축학회, 한국농촌계획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모전이다. 이번 농촌건축대전 공모주제는 모두 현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수상된 작품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실제 도시계획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공모 대상지는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대상지역인 상주 염암지구, 괴산 선비지구, 서천비인지구, 고흥 가야지구 등 4곳이었다.

평소 도심 건축보다 농촌 주거단지 조성에 관심이 많았다. 때마침 이번 대전의 주제가 ‘청년 농촌보금자리 주거단지 조성사업’이어서 출품을 결심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 단지를 조성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졸업을 앞두고 있기에 이번 대전을 준비하면서 졸업 작품도 연계해 준비했다.

Q. 공모 대상지로 전남 지역인 고흥 가야지구를 선택했다.

작품 이름 ‘가야에 가야하는 곳’의 ‘가야’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고흥 가야지구를 의미한다. 4곳의 대상지 중 가야지구만 우리 지역이라 선택했다.

일단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에 대한 지형분석과 주택과 거주 현황을 자세히 조사했다. 약간 경사진 지형에 대부분 2층 이하

의 층수를 가진 주택들이 분포되어 있었다. 건축학의 기본은 스카이라인을 맞추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2층 이하 층수를 가진 주택을 만들기로 했다.

또 가야리의 ‘가야’가 한자로 가지잇기라는 뜻인데, 이를 착안해 나뭇가지가 결국 한 나무에서 이어지듯 흩어진 마을 주민들이 어느 공간에서 ‘합’을 이뤄 소통과 공유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콘셉트를 잡았다.



안진선 학생의 ‘가야에 가야하는 곳’ 주택 설계. 가구 구성원 수 등에 따라 주택의 형태를 달리하는 섬세함이 돋보인다.

Q. '가야에 가야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작품 설명을 듣자면?

'가야에 가야하는 곳'은 귀농한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영농을 하며 살기에 최적화된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주택은 1~2인 가구 단독주택, 4인 가구 단독주택, 3~4인 가구 단독주택, 2가구 공동주택 등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거주 가구의 유형에 따라 규모와 디자인이 다른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각 주택 1층에는 텃밭, 2층에는 테라스 등을 두었다.

특히, 주택과 주택이 공유 공간 등으로 연결되거나 두 가구 가 한 주택에 살 수 있는 주거 형태를 설계하는 데 공을 쏟았다. 이는 농촌에 막 정착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다. 공유창고, 공유부엌, 공유정원 및 텃밭, 테라스, 공유다락방 등을 배치해 신규 농업인들이 기존 마을주민과 일상적인 교류를 통해 농촌에서 사는 방식을 빨리 익힐 수 있는 주거형태를 만들고자 했다.

'가야에 가야하는 곳'에서 소통과 공유의 공간은 공동텃밭,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이다. 커뮤니티 센터는 쉼터, 카페, 문화체육시설, 다목적실 등 청년들이 농촌에서도 손쉽게 문화, 체

육시설로 이용할 있도록 마련됐다. 이에 더해 공동보육시설도 추가해, 농사일에 바쁜 부모들을 대신해 마을사람들이 아이들을 자유롭게 돌봐주며 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도했다.

하지만 공동체 공간은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는 도로로 분리됐다.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동시에 개인 생활(프라이버시)도 존중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Q. 오는 2022년까지 고흥군에 들어서게 될 세계적 첨단 농업 융복합단지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연계했고, 귀농인들을 위한 체류형 농장도 배치했다.

2022년까지 완공될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대상지의 1km 반경에 위치해 있어 가야리에 사는 주민들이 이곳으로 출퇴근할 것을 생각해 작품에 반영했다. 공유육아공간과 체류형 농장이 대표적이다. 체류형 농장은 예비 귀농인들이 체류하며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곳이다. 물론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가깝기 때문에 첨단농업이 위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서 기존 농업인이 자신들의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예비 귀농인에 전수하고 기존 농업인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넘어 올 기술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Q. 설명만 들어도 오랜 연구와 아이디어가 농축된 작품인 듯하다. 섬세한 작업이니 만큼 작품을 완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었을 것 같다.

최근 2~3달간은 매진한 것 같다. 해외의 사례연구와 공동체 생활이 가능했던 우리나라 전통 주거의 사례 공부도 도움이 많이 됐다. 심사위원들도 다채로운 주택의 형태를 고심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주었다.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가구에 따라 다른 주택의 형태와 모습이 개성있고 참신하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Q. 상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는데, 무엇을 하고 싶나?

취업준비와 가족여행에 보태고 싶다. 평소 가족끼리 외출을 자주해 친근하다보니 작품에도 공동체 생활이 강조된 것 같다.

Q. 앞으로의 행보는?

건축 설계사무소에 입사해 2년간 일을 배우고 건축사시험에 합격하는 게 1차 목표다. 건축사가 되면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는 전문가가 되겠다.



2019학년도 제31회 조대문화상 시상식

시 부문 이현진·논설 부문 안시온 학생 대상



대학의 올바른 이념을 구현하고 참다운 민족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제31회 조대문화상에서 시 부문 이현진(문예창작학과 2학년), 논설·평론 부문 안시온(철학과 2학년) 학생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이현진 학생의 시 〈낭만적 우정〉 5편 중 ‘언니의 결혼식’이, 논설·평론 부문에서 안시온 학생의 ‘버드맨’이 대상으로 각각 선정됐으며, 지난 9월 18일 오후 3시 신문방송사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 부문 최우수상은 양정아(신문방송학과 4학년), 우수상은 김정원(문예창작학과 2학년), 논설·평론 부문 최우수상은 송혜림(법학과 3학년)학생이 차지했다.

시 부문 대상 수상자인 이현진 학생은 시상식에서 “시의 주인공, 박애린에게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다섯 편 중 가장 오래전에 태어나 가장 많은 고민을 겪은 이 시 덕분에 엄지의 시간을 오래오래 쓰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되었고 며칠 뒤면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당신의 시간을 기억하겠습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논설·평론 부문 대상 수상자인 안시온 학생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입니다. 두서없고 군더더기 많은 제 글을 읽어 주신 여러분과, 또 큰 상을 주신 신문방송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며 소감을 전했다.

언니의 결혼식

이현진 | 문예창작·2학년

남자가 인사를 왔다 부담스러운 멜론을 사들고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오년을 만났다고 했다
그 집에서 언니는 이미 사랑스러운 며느리라고 했다
몸만 오면 된다고 했다
벽돌 같았던 대사들은, 선풍기 바람 쐬 하듯처럼 녹아버렸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뭘 사왔던가
대사들은 뭘 닮았던가 역시
뭘든 처음을 이기는 건 쉽지 않다
기억나지 않는다

맞다
다 필요 없는 얘기다
오늘은 도래했고 손님들도 모였다
드라마를 찍기엔 양쪽 모두 평범하다
변수는 없다

언니는
높은 구두 위에
홀로 서 있다
하얗게 빼 입고 온 친구도
환하게 반기는 법을 알고 있다
언니의 약지가 빛을 내지만

나는
뜨겁고 축축한 눈꺼풀을 야무지게 문질렀던 엄지를 본다
그에 눌러 눈물과 함께 뭉개진 내 서러운 언어를 생각한다
이제는 약지의 시간
그에 대해 말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어떤 야한 장면 보다 민망한
내 가족의 키스신
오늘 엄마 손은 눈물을 찍어내느라 바빠
내 눈을 가려줄 수 없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드레스를 벗으면 찾아올
슬픔의 시간이야말로
이 키스신처럼만
짧고 의미 있게 지나가 주기를

막 시작하는 가을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없지만
잔치의 축배는
기쁨과 소음으로 흘러넘칠 뿐이지만

버드맨

안시운 | 철학·2학년

한 번의 명성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행운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명성은 하나의 별과 같아서 크게 반짝였다면 또 그와 비례하여 빠르게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본인들의 분야에서 인정받기 원한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번 맛본 그 명성의 달콤함은 잊기 힘들다. 그러기에 그 맛을 다시 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명성이란 한 번 맛보는 것도 힘들지만 또 한 번 맛보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요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명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연예계에서 적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만큼 치열하고 경쟁의 연속인 게 바로 연예계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계 할리우드라면 더욱 심해질 것이다.

할리우드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중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상업영화를 찍는 게 쉬운 방법일 것이다. 대중에게 가장 쉽게 기억에 남고 또 그 영화가 잘된다면 후속편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중은 자신을 그 캐릭터로 기억해 그들의 머릿속에 쉽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 끊임없이 생산되는 상업영화들과 거대 자본이 투입된 블록버스터 영화들 사이에서 과연 한 번의 명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얼마까지 살아 나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먼저 사로잡히지 않을까?

이 영화는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대중에게 잊힌 배우가 다시 한 번 재기를 노리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실화를 다룬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이야기와 비슷한 일들은 할리우드에서 많이 일어날 법하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인기 있었던 배우들이 아직까지도 할리우드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과거에 명성을 날렸던 스타들은 새로운 스타가 탄생한다면 자연스럽게 대중들에게 잊혀간다. 이런 사실을 직접 뼈로 느끼는 할리우드 배우들을 위한 영화이자 그들의 심리를 대변시켜주는 영화가 '버드맨'이다.

(중략)

이 영화는 내가 봤던 이나리투 감독의 영화 중 모든 측면에서 가장 완성도가 뛰어난 영화이다. 가장 먼저 칭찬할 부분은 촬영 기법으로 이 영화는 원테이크 촬영 기법을 사용했다. 영화 속 리건은 연극을 통해 다시 재도약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기에 이 영화는 원테이크 기법을 통해 관객들에게 연극을 보는 듯 한 느낌을 준다. 이는 히치콕 감독의 1948년 작 '로프'와도 비슷하다. 그도 원테이크 촬영 기법을 통해 영화 속 사건이 벌어진 장

소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관객들이 하나의 연극을 보는 듯 한 몰입감을 주었다.

(중략)

이 영화의 주인공인 리건의 내면은 자신의 과거의 영광인 '버드맨'으로부터 알 수 있다. 버드맨은 리건의 내면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인물로 리건의 그림자처럼 항상 함께 다닌다. 또 버드맨은 리건이 혼자 있을 때를 노린다. 리건은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타협하려고 하지만 그의 내면의 버드맨은 자꾸만 그의 찬란했던 과거를 상기하면서 그를 괴롭힌다. 혹은 그때의 상황을 닮으면서 리건을 절망시키기도 한다. 그는 버드맨을 떨쳐 보려고 노력하지만 버드맨은 리건에게 '나는 네 머릿속에 있다.'고 말한다. 영화가 결말로 향해 갈수록 리건의 상황이 복잡해지고 꼬이자 버드맨은 더욱더 리건의 머릿속을 흔든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버드맨과 싸운다.

리건은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그때를 계속해서 추억하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영광 때문에 그는 현실의 자신을 아직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것을 리건 본인은 모를 지라도 그의 분신이자 또 다른 자아인 버드맨은 알고 있다. 이는 우리 현대인들도 많이 느낄 것이다. 어떤 한 분야에서 인정받았었고 찬란했었으나 현재는 초라한 우리는 겉으로는 현실과는 타협하려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선 그때의 시절을 잊지 못하며 지금은 처량해진 자신을 바라보면서 버드맨이 리건에게 던진 대사처럼 "How did we end up here?"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와 버린 거지?" 하면서 묻고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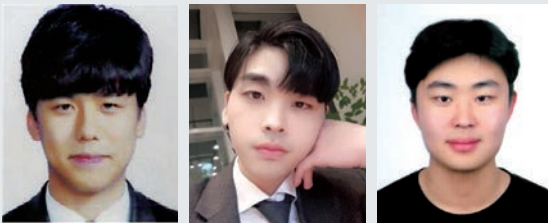
(중략)

이 영화는 열린 결말로 끝을 맺는다. 그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나 나는 그가 최종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영화 속에서 초능력을 부린다. 염력을 부리기도 하고 공중에 뜰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가 혼자 있을 때 가능했던 행동이었고 그가 버드맨과 대화할 때 발현했기에 이 초능력이 실제 리건의 능력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상상이었는지는 모호하다. 그러나 그 초능력은 그의 또 다른 자아라고 할 수 있는 버드맨과 함께 있을 때 극대화된다. 그러기에 이 초능력은 리건의 상상이자 다시 도약하고픈 그의 소망을 품은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조선대 디자인공학과 학생들 ‘미국 IDEA 디자인어워드’ 대거 입상

김효중·김희규·김민석 학생 동상 등
인공지능형 스마트 플러그 ‘몰티(Molti)’
가정용 광초음파 태아진단기 ‘비비토크(Bebe Talk)’
신개념 여행용 캐리어 ‘틸트(TILT)’ 등



김효중

김희규

김민석

조선대학교 디자인공학과 학생들이 세계적인 권위의 ‘미국 IDEA 디자인어워드’에 출품한 데 이어 대거 본상에 입상했다. 김효중(24·조선대 디자인공학 졸)·김희규(25·조선대 디자인공학 4년)·김민석(23·조선대 디자인공학 4년) 학생이 그 주인공들이다.

조선대학교 디자인공학과에 따르면 미국 산업디자인 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서 김효중 학생과 김희규 학생이 각각 출품한 디자인이 동상(브론즈·Bronze)을 수상했고, 김희규 학생의 또다른 출품작과 김민석 학생의 출품작이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됐다.

IDEA는 전 세계 기업 및 디자이너들이 출품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제품, 패키지, 서비스, 브랜드 등 20개 분야에서 △디자인 혁신성 △사용자 경험과 혜택 △사회적 책임 △심미성 등을 종합 평가해 상위 10% 정도의 본선 진출 작품을 선정, △골드 △실버 △브론즈 △파이널리스트 등 4가지로 본상을 시상한다.

김효중씨는 이번 디자인어워드에서 김선익(26)·김일(26)씨와 공동 출품한 인공지능형 스마트 플러그 ‘몰티(Molti)’를 선보였다. 몰티는 구형 가전제품도 IoT제품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스마트 멀티탭이다. 멀티탭에 연결하면 전원 공급과 동시에 적외선 송수신 신호로 제어돼 각 제품을 하나하나 연결해야 하는 단점과 다른 브랜드 제품과는 호환이 어렵다는 기존 제품들의 문제점을 인공

지능을 이용한 컨트롤러가 해결했다.

김희규 학생은 가정용 광초음파 태아진단기 ‘비비토크(Bebe Talk)’을 출품해 동상을 수상했다. 비비토크는 태아의 상태가 어떤지를 항상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 부모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세계적인 디자인역량을 인정받았다. 김희규 학생은 또 자율주행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가변식 전인장치 ‘ATM(Autonomous Tow Machine)’로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민석 학생은 여행용 캐리어 가방 위에 보조가방 등을 올려놓을 경우 짐이 떨어지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여행용 캐리어 ‘틸트(TILT)’로 파이널리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몰티

조선대 대학원 기계공학과 ‘홍민 코아 응웬’ 학생 국제학술대회 ‘아시아 열물성학회’서 우수발표상



열물성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인 ‘아시아 열물성학회’에서 조선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1학년 홍민 코아 응웬 학생(26세·베트남)이 ‘best poster award’를 수상했다.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올해 학술대회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중국 시안에서 개최됐으며, 총 18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중 우수 발표자에게 수여하는 상이 ‘best poster award’다.

응웬 학생과 지도교수 오동욱 교수는 “Analysis of carbon fiber alignment in a PDMS matrix flowing in an orifice channel”(오리피스 유로에서 PDMS와 탄소 섬유 첨가제 혼합물의 첨가제 정렬에 대한 분석)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구는 기존에 기술적 어려움으로 관찰, 정량화가 불가능했던 폴리머 복합소재의 기계적인 물성을 제어하고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응웬 학생은 “처음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큰 상을 받아서 너무 놀랍고 기쁘다. 앞으로도 폴리머 복합소재 관련 추가 실험 및 연구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열이 잘 통하는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데 일조하겠다”면서 “아울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국제학술대회 참석 기회를 주신 지도교수께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조선대 디자인학부 김주섭 학생 ‘서울모델리스트콘테스트’ 최우수상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김주섭 학생(패션디자인 전공·3학년)이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하는 ‘서울 모델리스트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모델리스트란 패션디자이너가 구상한 스케치, 도식화를 바탕으로 소재 및 디자인 특성을 반영한 패턴(옷본)을 제작해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전문가다.

‘서울 모델리스트 콘테스트’는 패션산업의 기초인 모델리즘 분야 인재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패션산업의 근간을 마련하고, 모델리스트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올해 19회째 운영되고 있는 국내 유일 모델리스트 대회다.

이 대회에서는 실물 원단 제작과 면접을 통해 대상 1명(상금 1000만 원), 최우수상 2명(500만 원), 우수상 4명(300만 원), 장려상 4명(100만 원), 입선 5명 등 총 16명의 우수 모델리스트들을 선발한다.

김주섭 학생은 “지난해부터 학생부가 폐지돼 일반부 대회에서 다수의 경력자들과 경쟁하게 되어 부담이 컸다. 학교에서 받은 전공수업이 큰 역할을 했으며, 서울을 오가며 수학했던 점이 좋은 결과로 돌아온 것 같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나라 전문 모델리스트로의 꿈이 확고해졌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약

1. 2019학년도-2020학년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주요 변경 사항			2019학년도	2020학년도
모집 인원	가군	인문	154	145
		자연	358	361
		예체능	18	19
		공통(자유전공)	12	44
		계	542	569
	나군	인문	201	173
		자연	177	176
		예체능	114	108
		계	492	457
	계	인문	355	318
		자연	535	537
		예체능	132	127
		공통(자유전공)	12	44
		계	1,034	1,026
모집군 변경			-	-
전형방법 변경			- 의예과, 치의예과(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수능 100% - 평생학습자전형(만학도전형): 교과40 + 출석10 + 면접50	- 의예과(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수능 97.7% + 면접 2.3% - 치의예과(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수능 97.6% + 면접 2.4% - 만학도전형(평생학습자전형): 교과90 + 출석10
학생부종합전형			-	-
전년도와 달라진 점			실기전형 영어영역 반영방법 변경 ※ 4-다. 영어 반영방법 확인	

2. 전형일정

전형명 (모집단위)		접수일정	대학별고사일	최종합격자 발표일
가	일반	2019.12.26.(목) 09:00 ~ 2019.12.31.(화) 18:00	-	2020.1.23(목)
가	일반, 지역인재 (의예과, 치의예과)		면접 2020.1.4.(토)	
가	실기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실기 2020.1.9(목)	
나	일반 (사범대 전체)		면접 2020.1.15(수)	
나	실기 (미술체육대학, 사범대 음악교육과)		실기 2020.1.16(목)	2020.2.4(화)
가	군사학과전형 (군사학과)		2단계평가 2020.1.6(월)~1.8(수)	

3.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 자격
가 나	일반, 실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0학년도 수능 해당 영역에 응시한 자
가	일반 군사학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0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가/나형), 영어, 한국사에 모두 응시한 자 - 군 인사법 제10조(임용 결격사유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가	지역인재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소재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2020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가형), 영어, 과학탐구(2과목), 한국사에 응시한 자
나	실기 (태권도 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0학년도 수능 해당 영역에 응시한 자
나	만학도전형 정원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만 30세 이상의 평생학습자

4.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가. 영역별 활용 지표

모집계열(단위)	수능 영역별 성적 활용 지표			비고
	국어	수학	탐구	
예체능을 제외한 전 모집계열	백분위	백분위	백분위	
예체능	백분위	-	백분위	
군사학과	백분위	백분위	-	

나. 영역별 성적 반영 비율

모집계열(단위)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가산점	
		반영 영역 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가	나		사/과		과목수
가/나	인문	4	35	25	25	15	2	• 사회탐구 반영점수 10%	
나	인문 (외국어계열)	4	35	25	25	15	2	• 제2외국어/한문 백분위 점수 5%	
가/나	자연	4	25	35	25	15	2	• 수학 가형 반영점수 15% • 과학탐구 반영점수 10%	
가	의예과	4	25	35	25	15	2		
가	치의예과	4	20	30	30	20	2		
가/나	예체능	3	50	-	25	25	2		
가	자유전공학부	4	25	25	25	25	2	• 수학 가형 반영점수 15%	
가	군사학과	3	35.7	35.7	28.6	-	2	• 수학 가형 반영점수 15%	

다. 영어 반영방법

모집계열(단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인문/자연계, 의예과, 자유전공학부, 군사학과	200	190	180	170	155	145	135	125	115
치의예과	240	230	220	210	200	190	180	170	160
예체능	200	190	180	170	160	150	140	130	115

라. 한국사 가산점 반영 방법

전 모집계열 (군사학과 제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	10	10	9	9	9	8	8	8

마. 수능최저학력기준

가군 일반 군사학과와 의예과, 자유전공학부, 군사학과, K-컬처엔터테인먼트학과, K-콘텐츠학부(일반전형), K-컬처엔터테인먼트학과
(가형 응시자는 해당 영역 1등급 상향 적용함)

5.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	모집계열(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가/나	일반 인문/자연계, 문예창작학과, 자유전공학부, 문화콘텐츠학부(일반전형), K-컬처엔터테인먼트학과	수능 100
가/나	일반 의예과, 사범대학(음악교육과 제외)	수능 97.7 + 면접 2.3
가	일반 치의예과	수능 97.6 + 면접 2.4
나	실기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수능 42.8 + 면접 1.0 + 실기 56.2
가/나	실기 미술체육대학	수능 36.3 + 실기 63.7
가	군사 학과 군사학과	1단계: 수능 100 2단계: 수능 70 + 체력 10 + 면접 20

2020학년도

우리 대학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한 회피·제척 제도 안내

'회피·제척 제도'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에 수험생과 친인척 또는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조사하여 입학전형 업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대학은 회피·제척 제도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모든 구성원에게 알려 공정성 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학 입학전형 평가 및 면접, 실기 등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친인척 또는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우리 대학에 지원할 경우 입학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음

자료 제출 방법

회피

친인척 또는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우리 대학에 지원할 의사가 있거나 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구성원 스스로 입학 전형업무(관리, 진행, 평가 등 일체 업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신고서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

제척

원서접수 후 우리 대학 자체 시스템과 지원자 파일을 연동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이 검색되는 경우 입학전형업무(관리, 진행, 평가 등 일체 업무)에서 배제

*자료문의: 입학사정관팀 230-6682



조선대학교 입학처장

조선대학교 특수대학원,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정책대학원 등 7개 대학원

조선대학교 특수대학원이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조선대학교 특수대학원은 보건대학원, 디자인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기술융합대학원, 교육대학원, 정책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이다.

● **교육대학원:** 11월 12일부터 18일(오후 5시)까지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과정은 교원자격증 취득과 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모집인원은 전공별로 인문사회계열, 이학체육계열, 공학예능계열, 한국어교육 별로 다르며, 교육과정은 순수학위(석사)취득신청과정(4학기), 교원자격증취득과정(5학기/하·동계 계절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2급자격증 취득(4학기제)하는 한국어교육으로 나뉜다. 원서접수는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다.

● **보건대학원:** 11월 4일부터 22일(오후 5시)까지 2020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45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학과는 대체의학과, 보건학과, 보건체육학과다. 접수는 인터넷 접수(유웨어플라이: <http://www.uwayapply.com>)이며, 인터넷 접수 후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송부해 11월 22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 **디자인대학원:** 11월 4일부터 29일(오후 5시)까지 2020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야간) 신입생 18명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디자인학과이며, 세부전공으로는 브랜드커뮤니케이션디자인, 스페이스·퍼블릭디자인, 패션·뷰티디자인, 텍스타일·세라믹디자인, 미술심리치료, 컬러테라피, 차문화공간디자인이 있다. 원서접수는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경영대학원:** 11월 11일부터 29일(오후 5시)까지 2020학년도 전기 경영학석사학위과정(야간) 신입생을 25명을 모집한다. 경영대학원의 교육과정은 학위논문과정(4학기 2년)과 학위논문면

제과정(5학기 2년6개월)으로 나뉜다. 원서 접수는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원서접수 마감일(11월 29일 오후 5시)까지 경영대학원으로 보내면 된다.

● **산업기술융합대학원:** 11월 11일부터 29일(오후 5시)까지 2020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야간) 신입생 33명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미용향장학과, IT융합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전기기술융합공학과, 융합자동차공학과, 융복합기술창업학과다. 교육과정은 학위논문과정 4학기제(2년), 학위논문면제과정 5학기제(2년6개월)로 나뉜다. 원서 접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 **정책대학원:** 11월 11일부터 29일(오후 5시)까지 2020학년도 전기 석사과정(야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와 모집인원은 행정학과, 군사학과, 사회복지학과, 중독재활복지학과에서 65명 이내이며, 국제사회복지학과에서는 외국인 20명 이내를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학위논문과정 4학기제(2년)와 학위논문면제과정 5학기제(2년6개월)로 구분된다. 중독재활복지학과(논문과정, 논문면제과정)와 사회복지학과(논문과정, 논문면제과정)를 마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자격이 부여된다.

● **임상약학대학원:** 11월 11일부터 12월 6일(오후 5시)까지 2020학년도 전기 석사과정(야간) 신입생 21명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임상약학과이며 원서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 접수다. 임상약학대학원 학위논문과정은 4학기제 2년이며, 학위논문면제과정은 5학기제 2년6개월 과정이다.

조선대학교 특수대학원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 학사 이상이어야 하며 출신 전공은 대학원별로 상이하니 더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원의 모집요강을 참고하여야 한다.

입학원서 및 원서접수, 모집요강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조선대학교 각 7개 특수대학원의 홈페이지(조선대학교 공식홈페이지 일반공지 참고)에 접속하거나 교학팀에 문의하면 얻을 수 있다.

문의처

- 교육대학원 062-230-6421
- 산업기술융합대학원 062-230-6430/6432
- 보건대학원 062-230-6355
- 경영대학원 062-230-6571/7038
- 정책대학원 062-230-6671
- 디자인대학원 062-230-7114
- 임상약학대학원 062-230-6360

조선대학교, 2020학년도 전기(1차) 대학원 신입생 모집

조선대학교가 2020학년도 전기(1차)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

4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대학원 신입생은 총 638명으로, 인문사회,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계열의 석사과정(350명)과 박사과정(288명)이다.

석사과정 지원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 취득 예정자 △학·석사연계과정 신청자는 조선대학교 재학 중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6학점(B+이상) 취득(예정)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다. 대학(학사과정)의 출신학과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박사과정 지원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 취득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다. 역시 석사과정의 출신학과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접수 기간은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다. 입학원서는 인터넷(www.uwayapply.com)으로만 접수하며, 인터넷 접수 후 22일 오후 5시까지 우편(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2층 대학원 교학팀) 또는 방문해 입학지원서 출력본 및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문의는 조선대학교 대학원(062-230-6402)에 전화하면 된다.

1.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2019. 11. 1.(금) 10:00 ~ 11. 21.(목) 17:00	•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 유웨이어플라이 http://www.uwayapply.com/
입학지원서(출력본) 및 서류제출	2019. 11. 1.(금) 10:00 ~ 11. 22.(금) 17:00	• 인터넷 접수 후 아래의 주소로 송부 또는 방문 접수 <우>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서석동)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해오름관 2층)
구술시험(면접)	2019. 12. 5.(목) 09:00 ~ 12. 9.(월) 12:00	• 학과에서 지정한 일시 장소(모집요강 주임교수 명단 참조)
합격자 발표	2019. 12. 18.(수) 예정	• 본교 대학원 홈페이지 (www.chosun.ac.kr/~grad) 공지사항에 발표함(개별통보 없음)
합격자 등록	2020. 1. 13.(월) ~ 1. 17.(금)	•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에 추후 안내

2. 모집인원

학위과정	계 열	인 원
석 사 (협동과정 포함)	인문사회	350명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박 사 (협동과정 포함)	인문사회	288명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계		638명

“등산, 찜질방, 인디밴드 음악… 한국이 좋아”

〈유학생을 만나다〉 체코 유학생 바르보라

한류열풍과 더불어 한국의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에 따라 최근 한국 대학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조선대학교도 외국인 재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해 한국 학생들에게 외국인 유학생들이 더욱 친근해질 수 있도록 조선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한국

생활기를 써 내려갈 계획이다. 첫 번째 순서로 유럽국가인 체코(Czech Republic)에서 온 바르보라(BARBORA BRUNECIKOVA)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녀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한국어연수 프로그램(GKS)’에서 외국인 인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조선대학교에 온 45명 중 한 명이다.



Q.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자기소개와 더불어 조선 대학교에서 수학하게 된 계기를 말해주신다면?

체코에서 온 바르보라(BARBORA BRUNECIKOVA)이며 한국나이로 25세입니다. 한국 이름은 '민설아'예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한국어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조선대학교에서 지난 9월부터 한국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1년 가량 조선대학교에서 공부할 계획이에요.

Q. 한국말을 잘하는데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어쩌다 한국과 사랑에 빠졌는지요?

2013년 고등학생 시절 여름방학에 영국에서 3개월 동안 머문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인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저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죠. 그 친구 덕분에 한국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고등학교 졸업 후 프라하에 있는 카렐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면서 한국어와 역사, 지리, 문화 등을 배우게 됐어요. 조선대학교 어학연수는 카렐대를 졸업하고 온 것이예요.

Q.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한국의 아이돌 가수 때문이던데, 바르보라씨는 그런 경우는 아니군요.

저는 아이돌 가수보다는 한국의 전통공연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해요. 전통악기 공연을 매우 인상깊게 봤고, 또 판소리 공연도 좋아해요. 심청가를 들을 때는 가사가 너무 구슬퍼서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정이 벅차올랐죠. 또 저는 특이하게도 한국

의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즐겨 들어요. 요즘에는 '술탄 오브 더 디스코'라는 흥뽀 빠져있어요. 서로 비슷한 한국 아이돌 가수의 음악과는 다르게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은 다채로운 음색을 가져서 매력이 넘쳐요.

Q. 한국생활은 어떤가요? 혹시 조국에서 학문으로 배운 한국과 다른 점이 많아 불편한 점은 있나요?

불편한 점은 딱히 없어요. 오히려 생활하면 할수록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이 저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등산, 찜질방 등 한국사람들이 취미생활로 하는 활동들을 저도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사람들이 친근하고 친절하게 대해줘서 생활하기 편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대부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려고 하니까요.

Q. 광주에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셨나요?

일단 등산을 좋아해 무등산을 갔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평소 산책을 좋아해 광주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고도 있어요. 안전하고 깨끗해서 산책할 때마다 즐거워요.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조선대학교에서 1년간의 어학연수를 마친 후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에요. 이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좋은 기회가 온다면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체코로 돌아가 한국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조선대학교, 4년 연속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한국어연수기관' 역할 톡톡
47명 유학생 수학 중**

조선대학교는 지난 2017년 교육부가 주관하고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한국어연수기관'(2018~2019)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프로그램은 세계의 젊은이들을 초청해 학비와 생활비를 제공하고 국내의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친한(親韓)·지한(知韓)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1967년부터 현재까지 총 149개국 6,500여 명의 외국인 장학생을 초청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3,000여 명의 동문들은 전 세계의

정계, 재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선정으로 조선대학교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2년간 대학원 진학 전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으며, 현재 47명의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이 조선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조선대 국제협력팀은 "조선대학교가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 관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된 것은 그 동안 '세계인의 조선대학교 동문화'라는 목표로 노력한 결과로서 명실공히 조선대학교가 세계 명품대학으로 인정받은 쾌거"라고 말했다.

조선대 LINC+사업단

2019년 제1회 산학협력 교류회

50개 산업체(가족회사) 및 기관 관계자들 120명이 대거 참석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이 산학협력 고도화를 위한 ‘2019년 제1회 산학협력 교류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9월 24일 오후 5시 광주 라마다호텔 4층 연회장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며 조선대학교 및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이 주관해 열렸다.

교류회는 조선대학교 LINC+사업의 중간보고와 산학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홍성금 조선대학교 총장직무대리, 김춘성 LINC+사업단장 겸 산학협력단장, 탁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양호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 원장, 김영순 광주문화재단 빛고을 시민문화관장, 황성환 한국광기술원 사업기획실장, 정광석 전남노인복지협회장, 윤인구 GL기술(주) 회장 등 조선대학교와 50개 산업체(가족회사) 및 기관 관계자들 120명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LINC+사업단 사업설명 △조선대학교 기술사업화 센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소개 △조선대학교 기술사업화센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상담 부스 운영 △2019 하계 현장실습수기공모전 및 광주 도시재생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2019년 사업 3차년도 제1차 자체평가위원회 등이 진행됐다.

LINC+사업단 사업설명회에서는 박현규 연구교수가 대학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산업(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업체(지역)협업센터 (ICC, RCC)’에 대해 발표했다. 조선대학교 연구처 산학협력팀이 조선대학교 기술사업화센터의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관한 내용도 발표를 통해 소개했다.

이후 2019 하계 현장실습수기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대상: 기계공학과 변정경 △금상: 디자인공학과 한래경 외 1명 △은상: 시각디자인학과 외 2명 △동상: 생명화학공학과 김지성 외 8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광주 도시재생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대상: 팀 아우어 △최우수상: 시비시심 외 1팀 △우수상: 아트파이 외 2팀 △장려상: 온고지신 외 4팀의 시상도 이어졌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장은 “조선대학교가 지역 산업 및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고도화 모델 창출 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학과 가족회사와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9 호남권 스마트 디바이스톤 대회

조선대 학생들 잇따라 수상 영예



전남도와 영광군의 후원을 받아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 TP 외 광주대·전남대·조선대·호남대의 각 LINC+사업단이 지난 9월 27일부터 이틀간 공동 개최한 '2019 호남권 스마트 디바이스톤 대회'에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전라남도 영광군 'e-모빌리티 엑스포'와 연계해 영광 스포디움에서 진행됐다. 대회는 스마트 디바이스와 관련하여 대학별 경쟁을 통한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호남권 메이커 문화의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대회에는 도시·에너지·교통 등 11개 분야의 아이디어를 준비한 총 12팀(조선대, 전남대, 호남대, 광주대)이 참가했다. 대회에선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아이디어를

논의하여 선정한 후 참가자 간의 네트워킹, 전문가 멘토링, 창업 강연 등을 통해 참여팀들의 열기를 북돋았다.

이후 시상식이 열렸다. 전라남도지사상(대상)은 조선대학교 버스타요팀이 '버스종합시스템bit' 아이টে으로 수상했으며, 그 외에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질병 셀프 진단 시스템'을 개발한 조선대학교 IT10103팀은 우수상을, 'Plant Pet'을 제작한 조선대학교 Plant팀은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장은 "전라남도 및 영광군과 호남권의 기관, 대학의 협업을 통해 호남권의 스마트 디바이스창업 생태계 조성의 시초가 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며 "향후 대상 팀의 아이টে은 지역사회를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선대 LINC+사업단

광주·전남·전북 균형발전 정보협력포럼

로컬 크리에이터·플랫폼 육성 등 주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이 마련하고 조선대학교와 광주·전남·전북지역 혁신기관들이 공동으로 주관한 '광주·전남·전북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이 지난 10월 2일 광주 아이플렉스(I-PLEX) 스타트업빌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 시스템(NABIS)의 지역 활용도를 제고하고, 상시적인 콘텐츠(통계, 정책자료 등) 협력과 더불어 지역 내 혁신기관 간 정보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전남·전북 지자체 공무원, 지역혁신기관, 대학 등 관계자 1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공통세션과 2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공통세션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택영 연구위원이 '플랫폼과 지역혁신'을 주제로, 산업연구원 정종석 연구위원이 '지역혁신기관의 네트워킹'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섰다.

이어 2부 세션에서는 조선대 LINC+사업단, 제주균형발전지원센터, 전북도청, 부산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이 참여해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사회맞춤형 인력양성 플랫폼'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

고, 특색있는 지역정보 구축 현황과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사후관리 Outbound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지역에서 4차산업 및 사회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KEIT 균형발전센터장은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활성화된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균형발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선대 HK+사업단, '재난인문학강좌' 개최

10월 15일~12월 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재난의 기억과 인식' 주제·6강으로 구성



지난 10월 15일 열린 '재난인문학강좌'에서 박남희 희망철학연구소장이 첫 번째 주제인 <재난을 통해 보는 공동체의 허와 실>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가 10월 15일부터 첫번째 강좌인 '재난인문학강좌'를 개최했다.

재난인문학은 자연재해와 전쟁, 산업재해 등 예기치 않은 재난 상황에 직면하는 현대사회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번 강좌는 재난인문학의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인문학 서비스와 재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마련됐다.

조선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강좌는 10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이어진다. 강좌는 총 6강으로 매회 오후 6시 30분~오후 8시 30분에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7층 영상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재난의 기억과 인식'이다.

강좌별 세부주제는 △10월 15일 <재난을 통해 보는 공동체의 허와 실> △10월 22일 <재난의 논리: 천재인가 인재인가> △11월 12일 <쓰촨 대지진과 중국의 재난 서사> △11월 19일 <조선시대 기우제의 시공간> △11월 26화 <재난에서 살아남기: 재난대국 일본의 경험> △12월 3일 <재난은 어떻게 관리(조종)되는가?>로 구성됐다.

강사는 1강부터 순서대로 박남희(나란히 희망철학연구소), 이찬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백지운(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이욱(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송완범(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김성일(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등이 나선다.

강좌프로그램은 조선대학교 학생, 교직원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펼쳐지며 수강료는 무료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선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062-230-6536)로 연락하면 된다.

SW융합교육원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코딩교실’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남구청과 함께 학부모와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코딩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광양 광영고 IT 창의융합진로교육캠프’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은 지난 8월 31일부터 10월 19일까지 광양소재 광영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 IT 창의융합진로교육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조립하고, 각종 센서를 블록과 연결하는 비트브릭을 활용한 피지컬컴퓨팅 교육이 이뤄졌다.

‘울곡초등학교 로봇 SW(소프트웨어) 페스티벌’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은 지난 9월 16일 광주 울곡초등학교에서 4학년,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울곡초등학교 로봇 SW(소프트웨어) 페스티벌’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끼득끼득 학과체험 프로그램 로봇 코딩교육’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은 10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조선대학교 입학처에서 주관해 개최하는 중학생 대상 ‘2019년 끼득끼득 학과체험 프로그램’에서 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을 진행했다.

‘광주 남구 지역아동센터 찾아가는 SW로봇코딩 교실’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은 최근 남구청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찾아가는 SW(소프트웨어) 로봇코딩 교실’을 성료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2019년 SW교육페스티벌’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이 지난 10월 11일부터 이틀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한 ‘2019년 SW교육페스티벌’에 5만 1,000여 명의 관계자와 관광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스포츠산업 창업 모의 IR 워크숍 개최

스타트업 전문투자자 멘토링 프로그램 ‘눈길’



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가 지역 스포츠산업 창업을 통한 스포츠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2019 스포츠산업 창업 모의 IR 워크숍’이 오는 9월 21일과 22일 전라남도 화순군 금호화순리조트에서 진행됐다.

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 시행한 ‘지역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선정되어 5년간 사업을 수행한 데 이어 올해도 재선정됐다. 올해 센터는 국비 4억3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스포츠산업 창업 교육사업을 통한 지역 맞춤형 스포츠산업 창업교육과 보육사업, 그리고 후속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지역스포츠산업의 발전과 스포츠강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스포츠산업 창업 모의 IR(investor relations: 투

자를 위한 홍보) 워크숍은 스포츠산업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스포츠산업 스타트업의 IR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포츠산업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지식전달식 강의가 아닌, 수도권과 지역의 엑셀러레이터와 엔젤, VC 등 스타트업 전문 투자자들이 참석해 스타트업들과 멘토-멘티가 되어 실질적 IR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세부적으로는 모의 IR 첫째 날부터 참가 기업별 모의 IR 발표와 모의 평가 및 5인의 평가위원에게 실시간 코칭을 받아 발표자료를 수정하는 시간을 갖고, 둘째 날에는 다른 5인의 평가위원에게 모의 평가를 받았다. 이후 참여한 기업과 멘토들이 함께 네트워킹 파티를 성료했다.

창업지원단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창업자 교육 및 네트워크 워크숍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 까지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창업자 교육 및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창업시너지를 위한 네트워크 회의 및 브랜딩 교육을 통해 창업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개별 맞춤형 창업사업 연계지원 목적으로 개최됐다. 또한 지역 창업자 간 네트워크 규모화를 위하여 지역 내 초기창업패키지 기관인 순천대 창업지원단과 공동 운영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번 행사는 총 20팀의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기업 대

표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관기관 사업설명 및 DB구축 △창업자 브랜드 전략 교육, △창업 시너지를 위한 분임토의 및 네트워크 △성과창출회의 △현장견학(백승박물관, 스타트업베이) △도약패키지 사업 설명 및 전략도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조선대 창업지원단 이승권 단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창업자와 주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형성으로, 향후 맞춤형 지원 및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가 기대된다.”며 “지역창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을 통해 지역창업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우수창업기업 구매상담회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이승권)은 지난 9월 26일 서울 영등포 파크호텔에서 '광주·전남 우수창업기업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조선대 창업지원단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유통센터, 광주대, 순천대창업지원단이 함께 주최, 주관한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지역 우수 창업기업제품의 판로개척과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상담회는 TV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카카오

메이커스, 티몬 등 대형유통업체와 광주전남지역 농수산물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관련 중소기업이 참여한 대규모 구매상담회로 구성됐다. 상담회는 총 13명의 대형유통망 관계자를 초청해 참여 기업들이 다양한 유통채널별 구매담당자들과 상품의 사업성 검증 및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됐다. 조선대 창업지원단 수혜기업인 밥디자인 김대명 대표(조선대 졸업생), 위누 성상엽 대표, 작

당모의 오순지 대표, 현대에프엔비 박승만 대표 등 총 4개 기업도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이승권 조선대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상담회가 참여 기업에는 대형유통채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품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광주창업포럼로드쇼 조선대서 개최



황이슬 대표

‘창업도시 광주 만들기’ 프로젝트인 ‘광주창업포럼로드쇼’가 9월 25일 조선대학교에서 개최됐다.

9월 광주창업포럼로드쇼는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조선대학교 스포츠창업지원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진흥센터, 광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창업지원네트워크가 주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K-ICT 창업멘토링센터, 광주테크노파크, 사회적협



김진아 대표

동조합 살림이 후원했으며, 이날 오후 4시부터 조선대학교 체육관 1층 창업카페에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선택한 한복 ‘리슬’의 황이슬 대표와 1913 송정역시장에서 전라도 사투리 콘텐츠 상품 개발로 유명한 ‘역서사소’의 김진아 공동대표가 연사로 나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체육예술교육기부사업단

조선대학교-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 체육·예술교육기부 운영 MOU



▲ 동부교육지원청과 MOU



▲ 서부교육지원청과 MOU

전라·제주권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인 조선대학교와 광주시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체육·예술 교육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현우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단장과 장영신 광주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우재학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체육대학 홍완기 교수 등이 참석했다. 또 이날 오전 11시 조선대학교와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주)은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체육·예술 교육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현우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단장과 이영주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기상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체육대학 홍완기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두 협약으로 전라·제주권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인 조선대학교와 광주시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사업단 운영을 통해 관내 학교의 학생들에게 체육·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월여고서 영화감독 장항준 초청 강연

‘찾아가는 교육기부 렉처콘서트’



조선대학교 '전라·제주권 체육예술교육기부사업단'은 최근(8월 26일) 장항준 영화감독을 초청해 광주 설월여자고등학교에서 '영화감독의 삶'이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교육기부 렉처콘서트'를 진행했다.

조선대 전라·제주권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단은 2019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체육·예술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부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행사에 강사로 나선 장항준 감독은 영화 '라이터를 췌라'로 데뷔, 기억의 밤 등 다양한 영화의 각본과 감독을 맡았으며 MBC 무한도전과 미스터 라디오 등의 예능에도 다수 출연해 활약했다. 이번 행사에서 장 감독은 파란만장한 영화감독으로서의 삶을 설월여고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들려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우지원 전 농구선수 초청 강연

찾아가는 교육기부 렉처콘서트 개최



조선대학교 전라·제주권 체육예술교육기부사업단은 지난 9월 23일 광주 고실초등학교와 수완중학교를 방문, 우지원 전 농구선수를 초청해 '인생 최고의 버저비터'란 주제로 '찾아가는 교육기부 렉처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강사로 나선 우지원 선수는 2000년대 최고의 농구스타로 '코트의 황태자'라고 불렸으며, 현재 다양한 티비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과거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이번 강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도 참여해 우지원 선수가 농구선수로 활약했던 과정을 함께 경청했으며, 농구교실도 진행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번 행사 참여한 수완중학교 학생은 "평소 농구에 관심이 많아 우지원 선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직접 농구를 배우는 기회가 생겨 너무 기뻐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독서토론클럽 회원 대상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기초교육대학 글쓰기센터와 연계해 독서토론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책 읽는 사람이 리더(Leader)가 된다’는 목표로 2008년 전국 대학 최초로 독서토론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현재 12기 독서토론클럽 회원 12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은 2019학년도 2학기 독서토론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독서토론클럽 팀별 활동 도서를 읽고, 토론하고, 감상문을 작성한다.

이후 중앙도서관 1층 글쓰기 센터에 상주하는 전문 튜터

와 일대일 대면지도와 글쓰기 실습과정을 3회 이상 이수하면 수료증과 문화마일리지 10M 등의 부상이 수여된다.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의사소통 역량을 제고하고 학습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스킬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만 중앙도서관장은 “독서와 토론, 글쓰기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능력 및 창의적 글쓰기 능력이 신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서관아, 힐링을 부탁해”... 중앙도서관 가을독서축제 진행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은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독서축제’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아, 힐링을 부탁해’를 주제로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학생들의 독서 생활화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가을독서축제’는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곳곳에서 펼쳐지며, △책 읽어주는 도서관 △도서&DVD 전시 △테마가 있는 영화 기행 △오늘 내가 대출한 도서! △도서 연체 탈출하기 △오디오북 대출왕 △학술정보DB 이용교

육 및 홍보 △도서관에서 Wavve on을 만나다 등이 운영된다.

이제만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장은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마련한 다채로운 가을 독서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상에 지친 심신을 힐링하고 지식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포스터를 참조하면 된다.

2019 중앙도서관 가을독서축제

책 읽어주는 도서관

- ▶ 도서 : 그림책에 마음을 묻다, 나태주 시집(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당신 생각하느라 꽃을 피웠을 뿐이에요), 당신이 옳다, 숲에서 1년, 여행의 이유
- ▶ 일시 : 2019. 11. 04(월) ~ 11. 08(금) / 교내 방송 시간 중 1일 2회

오디오북 대출왕

- ▶ 참여 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자료검색)전자자료)전자도서)오디오북, 중도 1층 로비 오디오북 키오스크 이용
- ▶ 선정 기준 : 파일 다운로드 건수 (스트리밍 제외)
- ▶ 기간 : 2019. 10. 21(월) ~ 11. 29(금)
- ▶ 시상 : 최다 대출자 12명 선정 (1등 10만원, 2등 5만원(2명), 3등 3만원(3명), 4-9등 1만원(6명) 문화상품권) / 중도 1층 이용자서비스센터

테마가 있는 영화 기행

- ▶ 상영 영화 : 리틀포레스트, 인사이드 아웃, 비긴 어게인
- ▶ 일시 및 장소 : 2019. 10. 29(화) ~ 10. 31(목) 17시~ / 중도 7층 영상세미나실
- ▶ 혜택 : CU문화마일리지 2M, 도서 연체 해제권, 음료 및 결강사유서 제공

도서 & DVD 전시회

- ▶ 일시 및 장소 : 2019. 10. 14(월) ~ / 중도 3층 멀티미디어정보센터, 4층 문학자료실
- ▶ 전시 자료 : DVD '리틀 포레스트' 등 16종, 도서 '당신이 옳다' 등 90종

오늘 내가 대출한 도서!

- ▶ 참여 방법 : 당일 대출한 도서 5권 서명 기재 후 추첨함에 응모
- ▶ 기간 및 장소 : 2019. 10. 28(월) ~ 11. 22(금) / 중도 1층 이용자서비스센터
- ▶ 추첨 인원 : 10명(1만원 문화상품권)

도서 연체 탈출하기

- ▶ 기간 : 2019. 10. 28(월) ~ 11. 08(금)(단, 5권 이상 대출한 이용자에 한함)

도서관에서 Wavve on을 만나다

- ▶ 일시 : 2019. 11. 01(금) ~ 11. 30(토)
- ▶ 장소 : 중도 3층 멀티미디어정보센터 내 웨이브온존 (PC 8대)

학술정보DB 이용교육 및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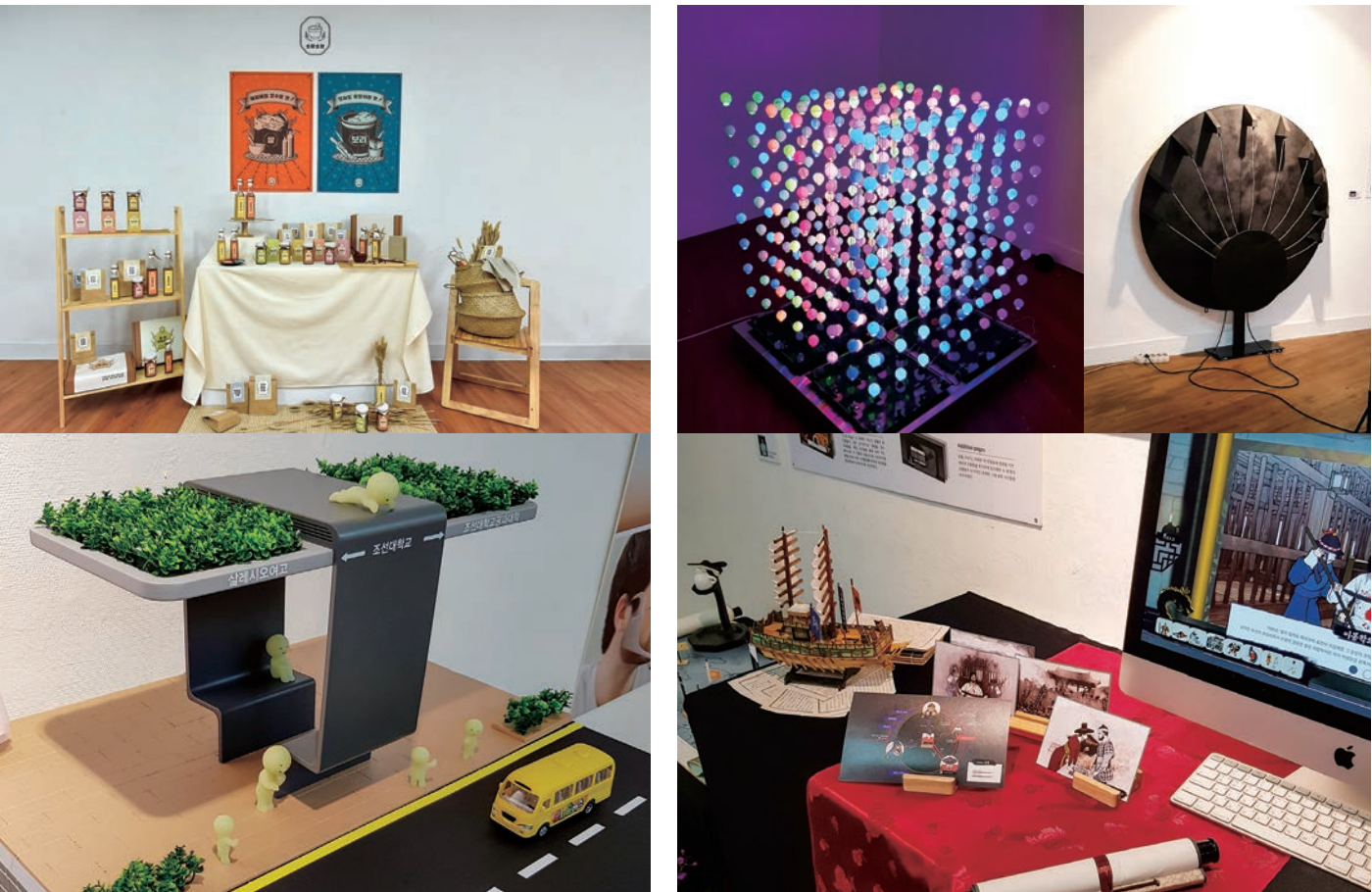
- ▶ 일시 및 장소

구분	DB명	일시	장소
1	KSDC	10. 15(화) 11시, 14시	중앙도서관 3층 이용자교육실
2	CopyKiller	10. 24(목) 14시, 15시	
3	SciFinder (화학분야 DB)	11. 18(월) 11시, 15시	
4	EndNote (서지작성)	11. 28(목) 14시, 15시	

- ▶ 혜택 : CU문화마일리지 10M 적립 ※ 교육 일정은 업체 사정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

“실험적 아이디어·창조적 아름다움의 산실”

2019년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졸업작품전 개막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의 졸업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조선대학교 미술관에서 올해 12월까지 조선대학교 미술관에서 열린다.

지난 9월 16일 오후 6시에 개막한 이번 전시회는 미술대학 학생들이 지난 4년간 배우고 익혔던 학습내용을 미술작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서는 순수미술부터 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등 미술분야를 총 망라한 실험적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일정은 시각디자인학과(9월 16일~20일)를 시작으로 디자인공학과(9월 23일~27일), 디자인학부 섬유·패션디자인전공(패션디자인 9월 30일~ 10월 4일/섬유디자인 11월 4일~8일), 미술학과 현대조형미디어전공(10월 7일~11일),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10월 14

일~18일), 디자인학부 가구·도자디자인전공(도자디자인 10월 21일~25일/가구디자인 10월 28일~11월 1일), 만화·애니메이션학과(11월 11일~15일), 회화학과 한국화전공(11월 25일~29일), 회화학과 서양화전공(12월 2일~6일), 미술학과 시각문화큐레이터전공(12월 9일~13일) 순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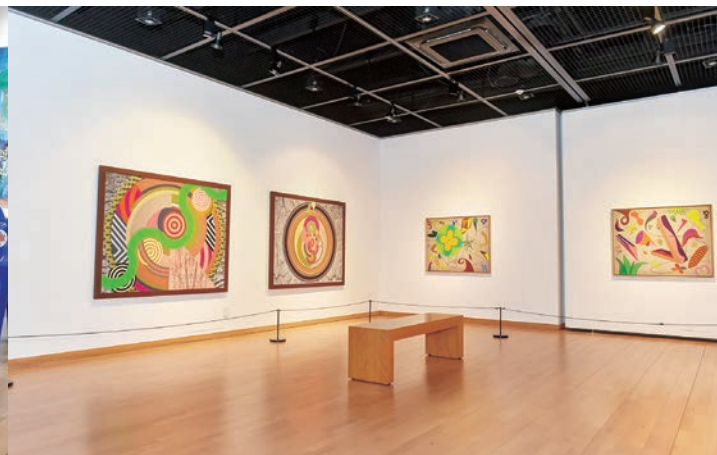
류시천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장은 “졸업작품전에서 대한민국 미술계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미술대학 학생들의 실력과 역량을 엿볼 수 있다”면서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이 앞으로도 아이디어의 산실이자 미술분야 대표 인재양성소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체관람, 작품설명 등 더 자세한 문의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062-230-7802~3)으로 연락하면 된다.

조선대 김보현 미술관, ‘Po Kim and Milestone’ 기획전시

“자연·추상화 독자적 세계 구축”

고 김보현 작가 예술 업적 되새겨
김보현·후배작가 20여 점 전시 기획전



조선대학교 김보현·실비아 올드 미술관이 자연주의 작품과 추상회화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김보현 작가의 작품세계와 업적을 되새기고자 ‘Po Kim and Milestone’전을 10월 2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개최한다.

김보현·실비아 올드 미술관은 조선대학교 본관 1층 중앙에 전시실과 수장고를 포함하여 총 362.8㎡ 규모로 2011년에 건립됐으며, 김보현 화백과 실비아 올드 여사의 작품 약 400여 점을 영구히 보관하며 다양한 기획전시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조선대학교 구성원은 물론 광주 시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1960년대 이후 현대미술의 심장부였던 뉴욕에서 한국 시절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 자유와 이상향으로 표출했던 김보현 작가의 추상 작품과 그의 후배 예술가들인 김유섭·김익모·조윤성·김종경·박홍수·박상호 작가 등의 작품 등 총 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먼저 제1전시실에서는 김보현 작가의 추상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제2전시실에서는 개별 작가들이 회화의 순수성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독자적인 조형언어를 감상할 수 있다. 전시에서 김유섭 작가는 비가시적 에너지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빛의 흡수’의 개념을 가시화한 작품세계를 보여주며, 김익모 작가는 작업 중 막대한의 무감에 대한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형태의 상징을 피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형태를 추측하도록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의 작품을 선보인다. 조윤성 작가는 작품을 통해 새로운 숭고미를 표현하기 위해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대비 개념을 강화했다.

제3전시실은 자연의 소재를 재현하는 3명의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돼 있다. 김종경 작가는 ‘생명-에너지’에 대한 탐구와 자문자답을 표현했고, 박홍수 작가의 작품은 한국 전통적 소리의 ‘음(音)’을 수묵 채색을 활용한 드로잉으로 눈길을 끈다. 이어 박상호 작가는 가상적 자연을 미디어와 인공 재료로 설치함으로써 박제된 현재의 시간성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이번 기획전의 오픈 행사는 10월 21일 오후 4시 30분 조선대학교 본관 1층 김보현·실비아 올드 미술관에서 진행됐다.

김승환 조선대학교 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김보현 작가의 작품 기증이 지닌 참뜻이 다시 한 번 빛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 디톡스’ 시작 해 볼까!

김한나 체육대학 공연예술 무용과 3학년(조선대학교 홍보대사)



그 자체로 문화, '인스타그램' 호응 받기 위해 연출·왜곡
계정비공개·절친한 친구지인들과만 소통, 이용시간 줄여
의미있는 취미생활 탐색, 재발견

요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즐기고 있는 SNS '인스타그램'은 사진 및 동영상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다. 전 세계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3억 명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보유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은 이제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가 돼 가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2010년에 등장해 지난 2014년 12월, 5년만에 전 세계 월간 활동 사용자 수가 3억 명을 돌파했으며, 총 300억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인스타그램에는 하루 평균 7000만 장의 사진이 올라와 공유되며, 거기에 달리는 '좋아요' 수는 25억 개라고 한다.

인스타그램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스타그램머블'(Instagramable)라는 단어도 주목받고 있다. 인스타그램머블이란 '인스타그램'과 영어단어 'able'(~할 수 있는)의 합성어로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이라는 뜻이다.

식당이나 카페 등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며 소통한다고 하기보다는 휴대폰을 들고 음식 사진 찍기 바쁘며 찍고 난 후에도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주며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에게 인스타그램은 '소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남들에게 '좋아요'를 받기 위해 연출하고 왜곡하는 과시 수단이 되고 있다.

나 또한 인스타그램의 '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인스타그램에 내 활동이라는 서비스에 들어가면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이 나온다. '내가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이 3시간이라는 기록을 보고 놀라고 말았다. 나는 내 자신도 모르게 인스타그램 중독이었던 것이다. 그만큼 내 생각과 일상이 사람들의 '좋아요' 수에 좌우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인스타그램머블'이란 신조어가 생겼듯이 세간에는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라는 말도 떠오르고 있다. 디톡스(detox)는 인체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란 디지털 중독에 빠진 현대인들에 대한 처방으로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단식이나 디지털 금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

나는 내 시간과 감정을 인스타그램에서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인스타그램 디톡스'에 돌입했다. 인스타그램 어플을 단숨에 지워버렸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인스타그램 사용 중단에 실패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하고 싶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쉬는 시간마다 찾던 인스타그램이 없어지니 일상이 불안해졌다. 갑자기 차단하는 것보다 애초에 내가 인스타그램에 중독된 이유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인스타그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조절할 줄 알아야 했다.

이후 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하고 친한 친구들과 지인들끼리만 소통하는 등 차근차근 사용 시간을 줄여 나가 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좋아요' 수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용 시간이 줄어들었다. 지금 나의 인스타그램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은 30분 안팎이다.

요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나처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중독돼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일단 자기 자신에게 왜 SNS를 하고 있는지 질문부터 해야한다. 그리고 보여주기 식의 연출이나 현실성 없는 게시물 업로드를 지양하는 것부터 시작하길 제안한다. 불필요한 SNS 사용이 줄면 평소 시간에 쫓기듯 살아왔던 나날에도 여유가 찾아올 것이다. SNS에서 떨어져 시간이 난다면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활동과 행동을 탐구하고 재발견해 보자.

2019학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시민르네상스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 수강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 11. 11.(월) 09:00 ~ 12. 20.(금) 17:00
- 교육기간 : 2019. 12. 23.(월) ~ 2020. 2. 15.(토) ➡ **개강일(12월 23일)부터 해당 요일에 개강**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www.chosun.ac.kr/lifelong>) ➡ **인터넷 수강신청**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수강신청 ➡ 수강료 계좌입금/카드결제
※ **기존수강생 : 전화 수강신청 가능(062-230-7700~2) ➡ 수강료 계좌입금/카드결제**
- 입금계좌 : [광주은행] 004-107-000152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계좌 입금 : 반드시 수강생 이름으로 입금**하고 그 외 입금 시 평생교육원으로 확인전화
- **카드 결제 : 평생교육원 방문**

■ 수강생 감면내용

구분		대상	감면율	제출서류	비고
일반	효도	65세 이상	30%	신분증	수강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발급일로 부터 1개월 내에 한함)
	기초생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10%	해당 증명서 또는 해당 증 사본	
	공무원	공무원	10%	재직증명서	
	교직원	학교 교사 및 직원	10%	재직증명서	
	일반	2개 과정 이상 수강생	10%	-	
학교	학)조선대학교 학생	재학생(휴학생포함), 졸업생	10%	학생증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학)조선대학교 재직 및 정년퇴직 교직원	본인	40%	재직증명서 (조선대학교 직원 제외)	
		직계가족	30%	가족관계증명서 (조선대학교 직원 제외)	
	교내 입주 외부기관의 임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	20%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전 기금	1억원 이상	본인	100%	-	
		직계가족	50%		
	5천만원 이상	본인	70%		
		직계가족	50%		
	3천만원 이상	본인	70%		
		직계가족	50%		
	1천만원 이상	본인	50%		
	5백만원 이상	본인	30%		

* 중복할인 불가함

* 감면관련 서류는 수강신청기간 내 제출할 경우에만 감면 적용됨

■ 민간자격증 과정

번호	자격명	등록번호	발급기관	자격취득비용	환불규정
1	미술심리상담사 2급	2009-0134	(사)한국심성교육개발원	70,000	- 접수 마감 전 100%환불 - 접수 당일 취소 시 20% 공제 후 환불
2	역학상담사자격증	2009-0009	(사)한국역술인협회	360,000	
3	생활운동지도사	2014-0081	(사)한국체력향상협회	1급 180,000원 2급 100,000원	- 자격 시험 미응시 및 자격 발급 미신청 시 전액 환불
4	자세교정지도사	2014-0082	(사)한국체력향상협회	1급 180,000원 2급 100,000원	

-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목 전담 교·강사에게 문의
- 자격취득비용은 검정(응시)료와 등록 교부비를 포함한 금액임
- 해당자격의 교육과정운영기관과 자격관리(발급)기관은 서로 별개임
- 교육과정운영기관 정보
 - 기관명 : 조선대학교 시민르네상스 평생교육원 • 대표자 : 이대용 총장직무대리
 - 연락처 : 062) 230-7700~2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 홈페이지 : www.chosun.ac.kr/lifelong
- <소비자 알람 사항>
 - ① 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주차 이용 안내

- 정기관(20,000원)
 - 평생교육원 방문 신청 ➡ 본인 및 직계가족 차량만 가능
 - 차량 최초 등록 시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직계가족 차량 등록 시)
- 일반주차(4시간 1,000원 / 4시간 초과 시 10분당 200원씩 추가)
 - 평생교육원 **수강신청 시스템 차량번호 직접 입력** (예시 : 광주00가0000/차량번호 전체 입력)
 - (본인 및 직계가족 차량만 등록 가능) ➡ **차량 출차 시 주차비 납부**
 - ※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강생은 신청기간(2019.11.11.(월) 09시 ~ 2019.12.20.(금) 17시까지 반드시 수강료 납부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 신청기간 이후 차량 신규 등록 및 변경요청은 교육원으로 전화 바랍니다.
- 정기관 및 일반주차는 교육 기간 동안 사용 가능
- 장애인 차량 등록은 행정실로 문의
- 정기관 구매 시 별도 주차권 구매 불가
- ※ **요금은 추후 인상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교재비, 재료비, 실습비 등은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수강료 환불은 조선대학교 시민르네상스 평생교육원 환불기준에 따릅니다.
- 개강 후에는 본인의 수강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개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 과정별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과정이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 시 수강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 (사)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와 민간협회 자격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업 시 공지합니다.
- 강의실은 개강 전날 문자로 안내합니다.

2019학년도 동계학기 일반강좌 개설과목

구분	번호	과목명	강사명	분반	요일	강의시간	시간	수강료	비고
자격증과정	1	미술심리상담사 2급 고급과정 등록번호 : 2009-0134	이항숙		월	19:00~22:30	3.5	200,000	실습비 1만원
	2	생활운동 & 자세교정지도사 (자연치유 & 대체의학실전) 등록번호 : 2014-0081, 2014-0082	강경구		화	19:00~21:00	2	120,000	실습비 5만원 (선택가능)
	3	역학심리상담사 자격증반 (동양천문학. 자미두수. 소성) 등록번호 : 2009-0009	선수석		목	19:00~21:00	2	100,000	
인문·교양	4	관상과 손금 (한순간에 상대를 파악하는 지인술)	선중근	01	수	16:00~18:00	2	100,000	
				02	수	19:00~21:00	2		
	5	명심보감과 손자방법 (돈. 출세. 성공. 처세. 리더십)	선중근	01	화	16:00~18:00	2	100,000	
				02	화	19:00~21:00	2		
	6	부동산경매기초 및 사례분석	손영옥		수	19:00~21:00	2	150,000	
	7	부동산경매 이론과 실무 (기초반)	장윤환	01	화	15:30~17:30	2	120,000	
				02	화	19:00~21:00	2		
	8	사주해석학	박한기		월	19:00~21:00	2	100,000	
	9	알기쉬운 사주학	임일택		화	19:00~21:00	2	100,000	
	10	역사속으로 들어가는 한시와 시조 여행	김이현		화	10:00~12:00	2	80,000	
	11	중국어	양인선	기초	화	19:00~21:00	2	80,000	
				초급	목	19:00~21:00	2		
문화·예술	12	가요난타 - 복치고 장구치고(중급)	채춘례		수	19:00~21:00	2	100,000	
	13	기초부터 배우는 연필초상화	조경숙	01	목	10:00~12:00	2	100,000	
				02	월	19:00~21:00	2	100,000	
	14	문인화(서예) 및 수묵·채색화 과정	정봉기	01	월/화/목/금 (택2)	10:00~12:00	4	120,000	교외 강좌 (요일, 시간 조정 가능)
				02	월/화/목/금 (택2)	14:00~16:00	4		
	15	보태니컬아트 (꽃그림, 식물 세밀화)	이유라		수	19:00~21:00	2	100,000	
	16	보태니컬아트(식물 세밀화) & 연필풍경 스케치	이유라		금	09:30~12:30	3	120,000	
	17	사진예술	임성하	01	목	19:00~21:00	2	80,000	야간사진 이론강의
				02	토/일 (격주)	08:30~16:00	8	80,000	매월 격주 2,4째주 토,일 촬영
	18	생활자기	김현아		토	09:30~12:00	2.5	180,000	실습비 18만원
	19	예술사진 초·중급	김병철		화	18:30~20:30	2	150,000	
	20	재즈피아노	정숙희		금	09:00~12:00	3	250,000	
	21	캘리그래피	지미정	01	목	14:00~16:00	2	100,000	실습비 9만원
				02	수	19:00~21:00	2		
	22	피아노 개인레슨	김혜원		금	09:00~12:00	3	180,000	
	23	하모니카	김선호		수	19:00~21:00	2	100,000	

구분	번호	과목명	강사명	분반	요일	강의시간	시간	수강료	비고
건강 · 레포츠	24	Social dance(리듬댄스)	김현희	초급	월	18:30~20:00	1.5	남 100,000 여 80,000	
				중급	월	20:00~21:30	1.5		
	25	댄스스포츠(Tango 초급)	이우진		화	19:00~20:30	1.5	100,000	
	26	댄스스포츠 라틴(룸바, 차차)	김호연	초급	목	18:30~19:30	1	80,000	솔로댄스
				중급	목	19:30~21:00	1.5	100,000	파트너십 댄스
	27	방송댄스(초급)	조정화		월/수	19:00~20:00	2	200,000	
	28	생활요가	김학곤	01	수/금	10:30~11:30	2	80,000	
				02	월/수	17:30~18:30	2		
				03	화/목	17:30~18:30	2		
	29	우리춤체조	마선희		화	18:00~20:00	2	80,000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모집안내

경비원 취업 필수이수과정!!!

경비업법 제13조 ②항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1.26.>

- 1인당 교육비용 : 100,000원 교재, 점심식사, 주차 무료제공
- 교육인원 : 매월 60명 선착순 마감
- 교육일정 : 매월 넷째주 화, 수, 목 (총3일, 24시간) 09:00~18:00

2019년 1월 22, 23, 24(연속 3일)	2019년 2월 19, 20, 21(연속 3일)
2019년 3월 19, 20, 21(연속 3일)	2019년 4월 23, 24, 25(연속 3일)
2019년 5월 21, 22, 23(연속 3일)	2019년 6월 18, 19, 20(연속 3일)
2019년 7월 23, 24, 25(연속 3일)	2019년 8월 20, 21, 22(연속 3일)
2019년 9월 24, 25, 26(연속 3일)	2019년 10월 22, 23, 24(연속 3일)
2019년 11월 19, 20, 21(연속 3일)	2019년 12월 17, 18, 19(연속 3일)

- 교육장소 : 평생교육원 105강의실(서석홀 1층)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입교신청서 작성 후 팩스(062-608-5288) 또는 이메일(khj24@chosun.ac.kr) 발송.
[광주은행]004-107-278216 (조선대학교평생교육원) 100,000원 입금.
※ 입교신청서는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양식함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신청문의 : 062) 230-7704



경찰청 지정 민간경비 교육기관
2006년부터 매 5년마다 연속지정

조선대병원, 관상동맥우회술 평가 ‘1등급’ 획득

지난 평가에 **연속 1등급** 달성



조선대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관상동맥우회술 5차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여, 지난 평가에 이어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전국 의료기관 346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조선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64곳의 의료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심장질환이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하는 등 질병의 위험도가 높고 서구화된 식습관 및 음주, 흡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진

행되고 있다.

심평원은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총 건수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률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입원일수 지수 △수술 후 출혈 또는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등의 지표를 통해 평가가 이뤄졌으며, 조선대병원은 특히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과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배학연 조선대병원장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질적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여 향후에도 1등급을 받겠다”고 말했다.

조선대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 위해 몽골·카자흐스탄 현지 방문



조선대병원은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몽골과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와 MOU를 체결하며 향후 조선대병원과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몽골은 현재 우리 병원의 주요 의료관광 타깃 국가 중 하나로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 수를 차지하고 있어 현지 환자 유치를 위해 손흥문 대외협력실장(정형외과)이 직접 8월 11일부터 15일 까지 3박 5일 동안 방문했다.

몽골과의 활발한 의료협력을 위해 손흥문 대외협력실장은 몽골 현지에서 있는 의료관광협회 사무실 및 현지 에이전시를 방문하여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활성화를 적극 논의했다. 또한 각국의 보건 의료 협력을 위해 몽골 전염병센터와 카자흐스탄 국립의학대학교 등과 MOU를 맺은 조선대병원은 손흥문 대외협력실장과 감염내과 김동민 교수가 몽골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선진의료기술을 적극 알렸다.

아울러 함께 동행한 이비인후과 최지윤 교수와 박준희 교수는 각각 카자흐스탄 제 5임상병원과 몽골국립제3병원에서 현지 의료진과 함께 환자를 수술하며 각국 의료진에게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수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한·몽 서울연수프로젝트' 및 병원 자체 연수를 통해 배출된 몽골 현지 의료진과 '조선대병원 몽골 연수생 동문모임'을 개최하여 향후 몽골 환자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힘을 모았다.

조선대병원, 대한뇌졸중학회로부터 '뇌졸중 센터' 인증 획득



조선대병원이 '뇌졸중센터(Primary Stroke Center)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년이다.

대한뇌졸중학회가 주관하는 '뇌졸중센터 인증제도'는 뇌졸중 치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장비, 인력 등 세부항목 지침을 마련해 2018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뇌졸중 진료체계 △뇌졸중 집중치료실 △주요 의료장비 사용 여부 △뇌졸중 지표 관리 등을 평가하여 이뤄졌으며, 조선대병원은 여러 항목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위급환자에 대한 역할 수행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2004년부터 응급 뇌졸중 치료를 위해 '뇌 지킴 베스트 응급시스템' 및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현재까지 7번의 평가 모두 1등급을 획득하는 등 최고 수준의 뇌졸중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안성환 뇌졸중센터장(신경과)은 "인증을 통해 전문학회로부터 환자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입증 받은 만큼, 지역의 급성기 뇌졸중 치료를 담당하는 중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정호 조선대병원 임상심리전문가, '2019 자살예방의 날'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조선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정호 임상심리전문가는 지난 9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 내 자살예방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2011년에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활동에 힘쓴 전문가를 표창해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광주지역 내 자살예방을 위한 활발한 강연 및 유가족 모임 운영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올해 장관상을 수상한 김정호 임상심리전문가는 자살시도자 치료에 앞장서 향후에도 지역 내 자살예방에 더욱 힘쓰고자 한다.

수상식에 참석한 김정호 임상심리전문가는 "광주지역 자살 시도자에 대한 심리적 치료와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소중한 목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배학연 조선대병원장, '2019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금장 수상



배학연 조선대병원장이 지난 9월 26일,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2019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에서 금장을 수상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9,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 기관장으로는 최초로 배학연 조선대병원장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장을 받았다.

배학연 교수는 현재 조선대병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지난 2018년 광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광주광역시장상을 수상한 배학연 병원장은 이번 대회 금장을 수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토대로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삼철 조선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대한가정의학회 학술대회 '학술회원기' 수상



조선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삼철 교수가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술회원기'를 수상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이날 열린 학술대회에서 그 동안 활발한 교육·연구·학술활동을 보이며, 일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의학 분야의 발전을 이끈 김삼철 교수에게 '학술회원기'를 수여하며 공로를 인정했다.

김삼철 교수는 메이요클리닉, 노스다코타 주립대의 통합의학·가정의학 연수를 마치고 현재 조선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웰빙기능의학클리닉을 광주·전남 최초로 개설해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또 김 교수는 대한가정의학회 논문심사위원, 미국가정의학 교육자협의회 완화의학·통합의학 분과위원 등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보이며 일차 의료 발전에 기여해 왔다.

조선대병원, 러시아 및 중국 연수의사 수료식

보건산업진흥원 주관 ‘한·러 연수 프로젝트’ 및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 수료
양국 의료 가교 역할 기대



지난 8월 26일, 조선대병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 한·러 연수 프로젝트’와 ‘하반기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 연수의 시작을 알리고,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기술 전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동안 국내 연수를 희망하는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노하우를 축적해 온 조선대병원은 이번 연수 역시 국내에서의 다양한 의료 경험 전수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한·러 연수 프로젝트’에 참여한 러시아 국적의 △타티아나 솔로멘코(감염내과) △콘스탄틴 토크마코브(마취통증의학과)와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 연수에 참여한 중국 국적의 △신리 장(이비인후과) △레이 쉬(이비인후과) △강리(정형외과) 이상 5명은 조선대병원 전문의와 함께 해당과 진료 및 수술실 등에서 최신의 의료기술 연수를 실시하여 양국가간의 의료 발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더욱이 다양한 의료 연수와 함께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한 연수생들은 앞으로도 조선대병원과 의료 교류를 통해 미래 의술을 책임지는 대표 의료진

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학연 병원장은 수료식에서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국내 연수를 희망하는 주변 국가가 늘고 있다”며 “해외 환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국내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해외 의료진 연수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의 의술을 알리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9년 상반기 조선대병원 정년퇴임자 오찬



왼쪽부터 핵의학검사팀 신천호, 배학연 병원장, 시설관리팀 김재관.

조선대병원은 지난 9월 30일 신양파크호텔에서 2019년 정년퇴임자 오찬을 갖고, 그간 각자의 자리에서 병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배학연 병원장 및 정년퇴임자들은 서로 아쉬웠던 점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으며, 조선대병원 및 퇴임자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였다.

배학연 병원장은 이날 정년퇴임자들에 감사패와 선물을 증정하며 “개원 48주년을 맞은 조선대병원이 앞으로도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진심어린 충고와 조언을 바란다”고 전했다.

조선대병원, 소아 환자 위한 ‘환아복’ 전달식

초록우산어린이재단·광주은행 후원
약 1,000만 원 상당 환아복 전달



조선대병원은 지난 10월 2일 하종현홀에서 조선대병원에 입원 중인 소아환자들에게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광주은행이 함께 마련한 약 1,000만 원 상당의 환아복 600여 벌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배학연 조선대병원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장용관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정선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이 함께했다.

배학연 병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광주은행이 지역의 소아환자를 위해 마련한 좋은 자리에 조선대병원이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면서 “희망과 용기를 통해 환자의 빠른 쾌유를 적극 돕겠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조선의대 총동창회, ‘자랑스러운 조선의대인상’ 수여식



조선대학교 총동창회가 지난 9월 7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박상호 양산연합의원 원장과 이상홍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김현성 강남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원장이 ‘자랑스러운 조선의대인상’을 수상했다.

박상호 원장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으로, 광주시 의사회 부회장, 감사 등의 의사회와 내과 개원의의 협의회 활동을 역임했으며, 제 18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장으로서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상홍 교수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으로,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근무하는 동안 홍보실장, 교육부장, 기획실장, 병원장을 역임하며 감염병센터 등 조선대학교병원의 발전에 헌신하였으며, 대한고관절학회 회장 등의 학회 활동을 통해 학술 발전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현성 강남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원장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으로서 최소침습척추수술법과 관련된 학술논문과 저서를 통해 여러 국제학회에서 최고 논문상과 학술발표 등으로 국제적으로 명성을 드높이고, 척추통증 환자의 진료에 기여한 공적으로 이번 상을 수상했다.

목에 혹(임파선, 림프절, 임파절)이 만져진다면?



박준희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임파선이란 우리 몸에 혈액과 비슷한 조직액(림프액)이 흘러 다니는 길을 임파관(림프관)이라고 하고, 임파관의 길목 곳곳에 있는 정류장 같은 곳을 바로 임파선(림프절)이라고 한다. 임파선은 림프절, 임파절과 같은 말이며 한자식 표기이다. 임파선은 우리 몸 전신에 500~600여 개가 분포되어 있고 이중 3분의 1인 150~200개가 목에 위치하고 있다.

목의 임파선이 붓는 원인은 크게 염증과 종양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내염, 편도염 등의 염증 질환이 있다면 해당부위 주변 림프절이 붓고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입술 옆에 단순 포진만 생겨도 경우에 따라서는 턱 밑에 위치한 임파선이 붓고 통증이 생기면서 턱 밑 멍울이 만져진다. 이런 경우는 대개 휴식과 간단한 약물치료로 호전되지만 결핵성 림프절염, 기구치병, 바이러스성 림프절염 등 다양한 원인의 림프절염과 감별이 필요하다.

목에 림프절이 붓고 만져진다면 환자의 나이, 동반증상, 통증 유무 등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림프절이 만져지는 위치와 만져지기 시작한 시기를 의사가 파악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 만약 우연히 거울을 보거나 샤워를 하면서 림프절이 만져졌고 그 증상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조금 지켜볼 수 있지만, 증상이 수주 이상 지속되었거나 반복되었다면 서둘러 정밀검사를 해야한다. 또한 최근 갑자기 커졌다고 하면 이 또한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임파선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에 혹이 만져지는 위치다. 흔히들 목에 림프절이나 혹이 만져지면 '갑상선암이지 않을까'하고 막연한 두려움에 병원 방문을 주저하게 된다. 하지만 목에는 갑상선 이외에도 임파선, 침샘, 근육, 혈관, 신경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갑상선만을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경우 다른 중요한 질환을 놓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갑상선암의 유병률이 높아 갑상선암에 대한 초음파 검사 등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나 경부임파선이 커져 있을 때는 반드시 편도, 인두, 후두 등의 목 안쪽 상태를 후두내시경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목의 림프절이 심한 통증 없이 붓는다면 악성림프종이나 경부 전이암 등의 가

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부 전이암의 경우에는 어떤 장기에서 연관돼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부 림프절 종대는 수개월간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암이 아닌 경우는 증상을 추적 관찰하면서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무조건 항생제를 남용 또는 암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림프절이 커져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단추는 전문의가 만져본 후 초음파, CT등을 통해 림프절의 크기, 위치, 상태를 파악한 후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경부 초음파는 방사능의 위험이 없고 얼마든지 반복 검사를 할 수 있으며 1~2mm 크기의 매우 작은 병변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부에 혹터를 남기는 절개생검보다는 초음파를 보면서 미세한 바늘로 림프절 일부를 채취하는 조직 검사가 진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염증으로 인해 림프절이 부은 경우는 항생제를 투여하여 경과를 관찰하면 대부분 증상이 자연히 좋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으로 인해 목의 림프절의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직 검사에서 확인되면 이때는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고 장기간 결핵약을 복용하여야 한다.

목에 림프절이 오랫동안 부어 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찰과 영상검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스트레스에 노출이 심한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면역계 저하에 따른 증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신체 다른 부분의 원인도 고려하는 세심한 진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 입교식

인도네시아 치과의사 3명 참여



조선대치과병원은 지난 8월 26일 치과병원 다산실에서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MKA, Medical Korea Academy) 하반기 연수 입교식'을 가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이번 연수에는 3명의 인도네시아 치과의사가 참여하였으며, 9월 26일까지 임상 연수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연수 참석자들은 치과 전문 진료 과목 관찰실습, 환자사례 관찰 및 해당 관련 문헌 고찰, 최신 의료기술 공유 등 컨퍼런스 참여 및 발표, 임상연구 및 실습, 개인 치과의원 방문 교육, 국내 전문과 학회 등에 참여하게 된다. 더불어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역사유적지 탐방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참석하였다.

손미경 병원장은 "해외 치과의사 연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조선대치과병원의 우수한 선진 치과의료기술을 전수·홍보하고, 거점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해외의료진 의료교육관광 및 해외환자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사무장병원 근절 예비 치과의사 현장교육



조선대치과병원과 치과대학은 지난 9월 26일 조선대 치과대학 1층 대강당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함께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과 '예비 의료인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조선대 치과대학 본과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사무장병원의 현황 및 의료인 피해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 2019년 9월 1일 ~ 10월 31일

성명	소속	약정금액	개인별누계
(유)타라스페이스		3,000,000	3,000,000
(재)전남문화재연구원		500,000	500,000
(재)조선대학교치과대학교육문화재단		53,500,000	1,776,885,500
(주)이레테크		1,000,000	3,000,000
(주)진성에스엠알		60,000,000	126,000,000
(주)탐공구철물		1,500,000	1,500,000
강병채		36,300,000	36,300,000
강연심	(주)백두건축사사무소	1,000,000	3,000,000
김남정		4,000,000	4,000,000
김민성	사범대학	100,000	2,503,600
김선중	공과대학	1,000,000	1,000,000
김시욱	공과대학	400,000	7,724,800
김영금(씨엔에스)		60,000,000	126,000,000
김정석	공과대학	990,000	4,562,000
김종경	미술대학	2,000,000	18,241,200
김준성	광주굿모닝병원	36,000,000	36,000,000
김태중	닥터비성형외과	24,000,000	24,150,000
김희수	공과대학	1,000,000	4,732,800
나장함	사범대학	100,000	2,741,200
문덕현	공과대학	400,000	1,600,000
민선용		1,000,000	1,000,000
민영돈	의학전문대학원	30,000,000	80,914,400
박경아	보건과학대학	360,000	360,000
박대환	외국어대학	30,000,000	127,607,200
박현주	사범대학	400,000	4,846,800
배영주	사범대학	100,000	2,503,600
백승권	중흥건설(주)	2,000,000	2,000,000
서덕희	사범대학	100,000	2,503,600
서현	사범대학	100,000	2,660,800
송경오	사범대학	100,000	2,582,800
신동찬	공과대학	1,000,000	6,951,200
엄인숙		10,000	10,000

CU Again 7만 2천 발전기금

성명	소속	약정금액	개인별누계
오영미		36,300,000	36,300,000
유호진	의과대학	10,000,000	15,431,200
윤창륙	치의학전문대학원	30,000,000	33,848,000
이봉주	자연과학대학	30,000,000	36,623,600
이성기	공과대학	1,000,000	5,211,200
이안나	보건과학대학	360,000	1,800,000
이영창		36,300,000	36,300,000
이인화	공과대학	400,000	6,431,600
이정희	의학전문대학원	30,000,000	35,403,600
이종국	공과대학	1,000,000	5,931,600
이종원	공과대학	100,000	1,000,000
이종원	공과대학	900,000	1,000,000
이지은	사범대학	100,000	2,263,600
임성후	강릉울곡병원	24,200,000	24,350,000
장희진	공과대학	1,000,000	5,948,000
전영남	공과대학	400,000	3,985,600
정경훈	공과대학	400,000	4,531,600
정혁상	상쾌한속내과	36,300,000	36,300,000
제일건설(주)		2,000,000	2,000,000
조광희	사범대학	1,400,000	15,110,800
조선대학군단 37기 일동		1,000,000	1,000,000
조영도	온누리병원	36,300,000	37,340,000
조향훈	현대가정의학과의원	30,250,000	32,290,000
주식회사아텍		5,000,000	16,470,000
차만진	차만진가정의학과의원	50,820,000	54,420,000
첨단종합병원		36,000,000	136,000,000
최강현	성모편안내과	24,000,000	24,000,000
최병상	공과대학	1,000,000	4,891,200
최은순	사범대학	100,000	100,000
하충식	사회복지법인 한마음국제복지재단	10,000,000	349,000,000
화순성심병원		50,000,000	50,000,000
합계		838,590,000	